

로병들의 추억



로병들의 추억

조선·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4(2015)년

머 리 말

주체39(1950)년 6월 25일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는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기 위하여 저들의 침략무력과 15개 추종국가군대들, 남조선피뢰군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막대한 병력과 전쟁장비들을 전쟁에 총동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하시어 전체 군대와 인민을 침략자들을 격멸하는 성전으로 불러일으키시었다.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그리고 청년학생들이 삶의 터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마치고 낮 그리고 펜을 총으로 바꾸어 들고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영용한 조선인민군용사들은 전쟁개시 3일만에 적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고 질풍같이 남으로 진격하였다.

대전해방전투에서 미24보병사단이 포위소멸되고 사단장 편이 포로되었으며 주문진해전에서는 인민군대의 4척의 어뢰정에 의해 미해군의 중순양함이 격침되었다. 인민군대의 비행기사냥군조들에 의해 전선과 후방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의 공중비적들이 추풍락엽처럼 떨어져내렸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여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있어 인민군용사들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엄혹한 시련도 이겨냈고 바위도 불타는 고지들에서 불사조들마냥 싸워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드디어 3년간의 전쟁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으며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조선에서 산산히 깨어져버렸다.

조선정전협정에 수표한 《유엔군》총사령관 클라크는 자기는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고 하며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였다.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오르던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피에 젖은 공화국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전승의 만세를 목청껏 부르던 애젊은 인민군용사들의 머리에도 이제는 흰서리가 내렸다.

로병들은 포연자욱했던 옛 전초에 자신들을 세워보며 전화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군 한다.

조국을 지켜 침략자들과 파감히 맞서 싸운 승리자들의 추억은 참으로 긍지높고 땃땃한것이다.

로병들의 추억은 전화의 그날 인민군용사들이 지녔던 필승의 신념, 격전장들마다에서 높이 발휘된 대중적영웅주의와 백절불굴의 투지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었는가를 감회깊이 되새겨주고있다.



미제는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적들을 격멸하는 조선인민군



전쟁개시 3일만에
조선인민군은 서울을
해방하였다.





대전으로! 부산으로!



해방된 대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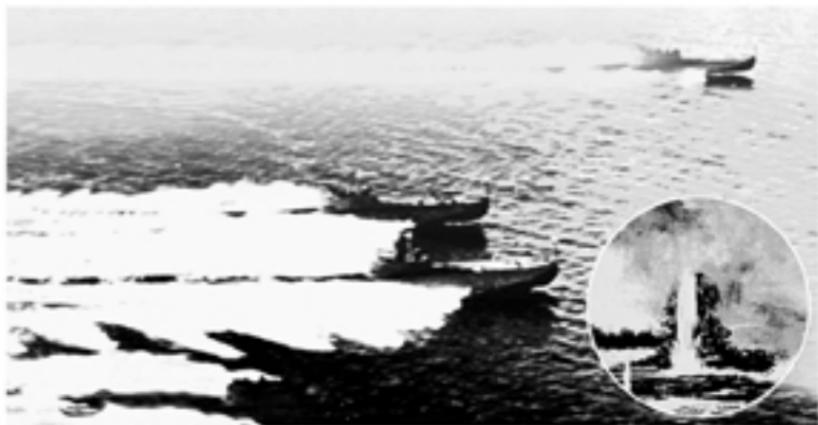
적땅크를 향해 육박하는
인민군 전투원



전쟁기간 1만 2 200여대의
미군비행기가 격추, 격상되었다.



조선인민군 포병들



조선인민군 해군은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을 격침시켰다.



출격을 앞둔 조선인민군 비행대



351고지 공격전투



조국의 고지를 피로써 지켜





흥겨운 회선오락회



침략자들의 밑모





정전협정조인식



조선인민군은 3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차 례

전쟁전의 작은 전쟁들	12
첫 군공메달	17
오산계선에서의 통쾌한 전투	21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25
락동강의 병사혁띠	29
팔공산아 기다리라	34
고지에 홀로 남아	40
잊을수 없는 모습	46
105땅크사단의 용사들	50
령활무쌍한 빨찌산전법으로 싸워	55
《마팔산》주사약	59
적들의 통신선으로 우리의 통신을	64
철령을 넘나들며	67
한대의 적기도 놓치지 말라	73
무쇠다리	76
통쾌한 역습	81
정찰병들의 진지	83
적기를 나에게로	86
가리산에 올린 포성	90
《방송포탄》	94
나의 화선악기	98

전쟁전의 작은 전쟁들

전쟁로병 박명선

이 세상의 모든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조국 해방전쟁도 결코 하루아침에 뜻밖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었다.

8.15해방후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은 전조선을 타고 앓을 흥심밑에 괴뢰군을 조직하고 그들을 미국제무기로 무장시키고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벌써 1947년부터는 38° 선부근에서 끊임없는 무장침습사건들을 조작하였다.

1947년의 무장침습이 분대, 소대,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수백회나 감행되었다면 그후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북벌》계획을 실천단계에 옮긴 1949년에 와서는련대, 사단규모로 38° 선의 모든 연선에 걸쳐 2 600여회나 감행되었다.

38° 선에서의 괴뢰군의 모든 군사행동은 다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와 같은자에 의하여 직접 계획되고 집행된 것이었으며 괴뢰군의 련대, 대대본부에까지 들어앉은 미군고문들에 의하여 지휘되었다.

주체38(1949)년에 서해안방어임무를 수행하는 련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나는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의

로 끝나는 무장침습사건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적들이 무장침습행위를 감행할 때마다 38° 선부근의 아군은 적들에게 무서운 된매를 안기곤 하였는데 우리 중대가 직접 진행한 월내도전투도 그중의 한 전투라고 생각된다.

전쟁을 앞둔 당시 월내도는 조선서해 룡연반도부근의 자그마한 섬이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까웠다.

그런데 적들은 이 섬을 전초기지로 하여 우리 해안에 대한 공격을 자주 감행하곤 하였다.

주체38(1949)년말 우리 중대에는 이 월내도를 차지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할데 대한 임무가 하달되었다.

우리의 해안지대에서 빈번히 감행되는 적들의 무장침습행위를 목격하면서 복수의 피를 끓이던 중대군인들은 적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기회가 생겼다고 너도나도 좋아하였다.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춘 우리 중대의 전투원들은 밤이 깊어지자 여러척의 목선에 나누어타고 은밀하게 섬으로 접근하였다.

예상외로 섬은 깊은 잠에 든듯 조용하였다.

우리는 1소대를 선두로 하여 새벽녘에 섬에 올랐는데 섬에는 적들이 한놈도 보이지 않았다. 섬의 유일한 주민인 로인내외의 말에 의하면 피뢰군놈들이 무슨 기미를 했는지 전날 저녁에 부랴부랴 섬에서 철수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섬의 지형지물을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 지체없이 참호와 교통호들을 파고 방어준비를 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방어준비를 완성하는 한편 훈련을 본격적으로 벌리었다.

적들의 소규모적인 무장침습과 간첩활동을 짓부시기 위한 작은 전투들이 있었다.

월내도에 침습하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큰 전투는 그로부터 몇달후에 있었다.

그날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고기배보다 조금 큰 발동선 2척이 섬주변에 나타났다. 적들의 배였다. 2척의 배는 섬주변을 조심히 돌면서 섬의 형편을 살피는것 같더니 인차 자기들의 소굴로 배머리를 돌렸다.

나는 적들이 섬을 정찰하러 왔했으며 늦어서 아침에는 섬에 들이닥칠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닌게 아니라 저녁어스름이 깃들무렵 적들의 배가 섬에서 가까운 바다에 나타났다.

쌍안경으로 바라보니 몇시간전에 나타났던 발동선 2척이 크고작은 쪽배 수십척을 달고 점차 속도를 내면서 섬으로 다가왔다. 발동선과 쪽배에 탄 적들의 수를 짐작하니 100명이 좀 넘어보였다.

증강된 한개 중대로 적들의 수를 추산한 나는 이미 전투태세를 갖춘 대원들에게 절대 선불질을 하지 말고 명령이 있을 때 사격을 개시하도록 강조하였다.

적들의 수는 비록 우리보다 많았지만 형세는 방어

진지를 든든히 차지한 우리 중대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나는 적들을 한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잡도리를 하였다.

바다와 린접한 룡지나 섬을 방어함에 있어서 될수록이면 적의 주력을 룡지에 불기 전에 소멸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나는 적들을 섬에 다 상륙시켜놓고 몽땅 잡아치울 생각을 하였던것이다.

적들은 섬이 가까워지자 배와 배사이를 련결한 바줄을 도끼로 끊어버리고 넓게 산개하여 거의 동시에 각이한 배들을 섬에 붙이였다.

조급하게 배에서 뛰어내리는 꼴들이 쌍안경으로 얼핏얼핏 보였다.

졸병놈들에게 무어라고 훈시하는 장교인듯 한 놈도 보이고 급하게 뛰어내리다가 미끈미끈한 바다가바위우에 엉덩방아를 찧는 놈도 보이였다.

놈들은 인차 대렬을 수습하고 전투대형을 짓고는 고지로 전진해왔다. 적들은 고지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자 인민군대가 철수했거나 매우 적은 인원이여서 대항할 엄두도 못낸다고 생각했는지 기고만장하여 고지로 기여올랐다.

나는 진지에 몸을 깊숙이 숨기고 숨소리를 죽이고있는 전우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중에는 전투에 처음 참가하는 신입병사들도 있었다.

전투경험이 없는 대원들을 위해서도 이번 전투를 잘 치르어야 한다는 생각이 언뜻 지나갔다.

30여m까지 접근한 놈들이 어슬렁어슬렁 올라오는 모습이 이제는 잘 보였다. 수류탄투척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 나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공격서열의 가운데서 접근하던 장교놈을 명중사격하는것으로 중대에 사격 명령을 내렸다.

우리 군인들의 맹사격과 수류탄공격에 적들은 갈팡질팡하였다.

그러나 적들도 달아나는 놈은 없었다. 적들은 섬의 지형지물에 의거하여 맞불질을 해댔다.

나는 대원들에게 수류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큰 바위나 나무뒤에 숨어있는 놈들을 소멸하라고 명령했다.

우리의 몰사격과 수류탄벼락에 놈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그중 큰 너럭바위뒤에 몸을 숨기고 맞총질을 해대던 마지막놈들도 내가 수류탄을 련속 3개나 던지자 넋을 잃고 손을 들고 나왔다.

전투는 30분 좀 지나 끝났다. 포로 다섯놈을 제외하고 섬에 올랐던 백수십놈의 적들을 전부 소멸한 통쾌한 전투였다.

이 전투는 우리 중대군인들에게 적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잇을수 없는 전투인 동시에 전쟁도발에 피눈이 되어 날치던 적들에게 큰 타격을 준 전투였다고 생각한다.

그 전투에서 얼마나 되게 혼썰이 났던지 이후에 적들은 다시는 이 섬에 얼씬도 못했다.

첫 공공매달

전쟁로병 김주한

주체39(1950)년 7월 전선중부의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소백산줄기를 따라 방어하는 적들을 소멸하면서 공격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가렬한 전투들을 진행하고있었다.

전선중부는 적들의 방어에는 유리한 반면에 인민군련합부대들의 기동에는 매우 불리한 지대였다. 그러나 인민군부대들은 걸음걸음 막아서는 적들의 발악적인 저항을 분쇄하며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였다.

바로 그때 나는 사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게 되었다.

-한강에 도하장을 꾸리고 전선으로 나오는 인원과 탄약들을 도하시킬것!-

나는 즉시 다섯명의 대원들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행군길은 멀고 험난하였다.

하지만 쉬임없이 들려오는 포소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였다. 그것은 마치도 탄약, 탄약! 하는 전우들의 목소리같았다.

한강가에 이른 나는 대원들을 두개 조로 나누었다. 한조에는 도하장을 정할 임무를, 다른 조에는 떼무이에 쓸 통나무들을 찍을 임무를 맡겼다.

그때 우리에게는 총과 배낭밖에 없었다. 주변에는 인가가 몇채밖에 없었는데 겨우 도끼 하나를 빌려왔다.

우리가 강상류에 도하장을 정하고 때들을 못기 바쁘게 포탄을 적재한 화물자동차들이 들이닥쳤다.

호각소리가 다급히 울렸고 신호기가 쉬임없이 펄럭이었다.

마지막 자동차가 강에 들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숲속에서 여라문놈가랴 되는 적들이 나타났다. 얼핏 보니 꽤 잔병무리였다.

나는 세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적들을 맞받아 나갔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숲속에 은폐된 적들을 소멸하기란 간단치 않았다. 나는 무턱대고 자동총을 휘두르는 대원을 향해 소리쳤다.

《탄알을 아끼라. 조준해서 쏘라!》

총성은 차츰 뜸해져갔다. 예리한 눈초리들이 숲속을 계속 노리었다. 이때 수풀속에서 한놈이 상반신을 벌떡 일으켰다.

나는 그놈을 향해 재빨리 방아쇠를 당겼다. 놈은 막대 꺾이듯 꺼꾸러졌으나 그놈의 손에서 뿌려진 수류탄은 이미 공중에 뿔고 얼마후에는 포탄차의 적재함 밑에 나딩굴었다.

《빨리 수류탄을…》

그러나 나의 목소리는 이미 철대로 쉬였고 재차 숲속에서 사격이 가해져 누구도 나의 말을 가려듣지 못하였다.

위급한 순간이었다. 나의 귀전에는 퇴관이 발화되는 소리가 딱하고 들리는것 같았다.

이때 앞에서 신호기를 흔들던 나어린 전사가 그곳에 불쑥 나타났다. 그 전사는 다짜고짜 수류탄을 덥석 쥐었다. 나는 저도모르게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뜨는 순간 수류탄이 폭발하였다.

《강동무!》

잠시후에야 전사는 눈을 떴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동무들… 전선에… 탄약을…》

전사의 키는 보총길이지만 하였다. 그래서 늘 애를 먹었다. 그는 짬만 있으면 나에게 자기를 전선에 보내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내가 뭐 후방에서 말이나 먹이고 련락이나 다니자고 나이를 두살이나 불구어 입대한줄 알아요?》

그러던 그가 한몸을 바쳐 전선으로 가는 포탄차를 구원해낸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구원해낸 포탄으로 전우들이 원쑤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들뜨울것이며 자기의 복수, 쓰러진 부모, 형제들의 복수를 할것이라고 생각했을것이다.

전사의 영웅적인 희생은 도하장을 지켜선 우리들에게 여기도 전선이라는 자각을 다시금 새겨주었다.

다음날부터 도하전투는 더욱 치렬해졌다. 하늘을 짝메우며 적기들이 달려들었던것이다. 품들여 만든 도하장이며 대피장, 때목들이 눈깜작할 사이에 날려가버리군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억척스레 강바닥을 다시 파올려 도하장을 꾸렸고 대피장을 손질 하였으며 때목들을 못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대원들과 함께 도하장을 정비하던 나는 세발의 불발탄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시 아슬아슬한 해제전투가 시작되었다. 나의 얼굴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당장이라도 포탄차가 들이닥칠수 있었다.

(빨리! 빨리!)

마침내 두발의 불발탄이 무사히 해제되었다.

이제 남은것은 한발!

내가 불발탄꼬리부에 바줄을 걸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지축을 울리는 폭음이 지척에서 울렸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불발탄이 터진것이였다. 나는 폭풍에 허공 날렸다...

눈을 뜨니 한 전사가 눈물이 그렇해서 나를 내려다 보고있었다.

나는 그 전사에게 해제작업이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었다. 전사는 지금 막 파내고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전사가 짝 붙들고있어 일어설수가 없었다.

《시간이 급하오. 우리가 구실을 못하면 동무들이 위험하오. 전선에 포탄이 가닿지 못한단말이요.》

나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끌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한강에서 우리가 전투를 벌인것은 불과 며칠
간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전선으로 떠나보낸 자동차들
은 얼마인지 셀수 없었다.

그후 우리는 다른 임무를 받고 도하장을 떠났다.
우리의 싸움터는 이번에도 전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
었다. 그러나 매번 우리가 수행한 임무는 목숨을 내대야
하는것들이었다.

한강계선에서 떠난 얼마후 나는 화선입당의 영예를
지니고 첫 군공메달을 수여받았다.

오산계선에서의 통쾌한 전투

전쟁로병 리춘권

오산계선에서의 전투라고 하면 조국해방전쟁에 참가
하였던 우리는 물론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미군의 첫 지상부대의 선견대를 통쾌하게 짓부신
이 전투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승리에 대한 류다른
추억으로 남아있다.

당시 인민군대의 드세찬 반공격에 넋을 잃고 3일만에
서울을 빼앗긴 적들은 하루빨리 미군의 지상부대를
조선전선에 들이미는것을 전쟁국면을 돌리기 위한 시급
책으로 찾았다.

그리하여 제일 먼저 기여든것이 미 제24보병사단 21련대 1대대이다. 대대장이 스미스인것으로 하여 일명 《스미스 특공대》로 불리운 이 대대가 받은 임무는 부산—서울 도로를 따라 북상하여 될수 있는 한 북쪽에서 인민군대의 공격을 저지시켜 사단주력의 전개를 보장하는것이였다.

임무를 받은 《스미스특공대》는 52야포대대와 함께 오산북쪽 금암리계선에 방어진을 치고 남진하는 인민군 부대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나는 조선인민군 제4보병사단 18련대 3대대 8중대 1소대 1분대장으로 오산계선에서의 전투에 참가하였다.

내가 속한 부대는 수원을 해방하고 수원-평택도로를 따라 반공격의 속도를 더욱 높이며 남진하고있었다. 그때 우리는 구간약진을 통해 땅크구분대와의 보조를 맞추며 행군하였다. 구간약진의 방법으로 행군할 때에는 땅크들이 먼저 앞으로 일정한 구간을 나가서 보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또 나가는 방법으로 행군하게 된다.

그런데 7월 5일 아침 우리 부대가 화성군 오산면 금암리(당시)계선에 이르렀을 때 앞에 나가서 우리를 기다릴줄 알았던 아군땅크들이 갑자기 불을 뿜으며 앞으로 달려나가는것이였다. 미군을 발견한 우리 땅크들이 보병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육박했던것이다.

요란한 땅크의 동음과 포탄이 작렬하는 속에 정면에 있던 미군 52야포대대의 포진지를 짓밟개는 우리 땅크들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도 재빨리 전투위치를 차지하

여야 하였다.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적들이 쏘는 기관총탄이 귀전을 스치는 개활지대를 통과하여 최대의 속도로 달렸다.

우리 중대가 왼쪽고지릉선을 차지하였을 때 7중대도 반대쪽고지릉선을 차지하고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그때에야 우리는 골짜기에서 어슬렁대는 놈들이 눈확이 펴 들어가고 머리칼색도 류별난것을 발견하였다.

-미국놈들이다!-

나는 저도모르게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잡는 전우들의 눈에서 불이 이는것을 보았다.

(저놈들만 아니었던들 우리는 지금쯤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과 함께 평화의 거리를 거닐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차지한쪽으로 달려올라오는 놈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이 들썩워졌다.

그러자 놈들은 바위며 잡관목들에 몸을 숨기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우리 중대장이 사격중지명령을 내렸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 때 키가 특별히 큰 한놈이 불쑥 일어서더니 귀에 선 말로 뭐라고 소리치자 단번에 놈들이 몸을 일으키며 달려올라오는것이였다.

적들이 수류탄투척거리에까지 접근하자 중대장의 사격명령이 다시 내려졌으며 놈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돌아서서 뺨소니를 치는 놈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돌격명령이 내렸다.

우리는 총창을 비껴들고 산아래로 달려내려가며 적들의 가슴팍에 총창을 박았다. 어떤 때에는 들어간 총창이 잘 뽑히지 않아 발로 걷어차다가 그래도 안될 때에는 얼른 다른 총을 틀어쥐고 또 다른 놈을 찔렀다.

이 전투에서 우리 중대의 2소대 분대장 조현구동무는 총창으로 원수놈들을 17놈이나 찔러죽이었는데 심지어 한 총창에 두놈의 몸뚱이를 꿰지르기도 했다.

우리는 뒤이어 도착하는 땅크부대, 보병들과 함께 적들을 포위하고 118고지에서 최종적으로 피멸시켰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놈들은 몇놈밖에 되지 않았다.

전투는 불과 몇시간만에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그 짧은 전투시간은 미군의 《강대성》의 신화가 처음으로 산산이 부서진 력사의 순간이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놈들은 자기들이 조선전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 인민군대가 무서워 달아날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승리는 우리의것으로 되었으며 우리는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하였다.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지 60년이 되는 지금 머리에 백발을 날리며 빛나는 승리를 떨친 전쟁의 나날들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추억은 류다르다.

우리 로병들은 이미 미국놈들과 맞붙어보았다. 약한자에게는 포악한 승냥이이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보다 비겁하고 약한 놈이 바로 미국놈들이다.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전쟁로병 배순재

주체39(1950)년 8월 락동강전선에서 싸운 제3보병사단 직속구분대인 우리 대대는 적들과 격전을 벌리는 수암산고지에서 전투력량을 보충하여주는 한편 사단공병대대와 협동하여 도하장물속에 수중다리를 놓는 임무를 함께 맡아 수행하고있었다.

사단의 눈앞에는 대구가 있었다. 대구를 점령하자면 교두보라고도 할수 있는 수암산을 장악하여야만 하였는데 이 수암산이 바로 사단공병대대와 함께 우리 대대가 지키고있던 도하장의 코앞에 있었다.

수암산이 우리에게 대구의 물목을 여는 돌파구라면 적들에게는 대구방어의 마지막지렛점이었다. 하기에 적아간에 일진일퇴의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던 수암산과 그와 린접한 도하장은 하나로 잇닿은 열점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이며 일시적인 후퇴의 길에서 다른것은 다 버리면서도 수암산격전에 대한 취재자료만은 귀물처럼 간수하여왔다고 하던 종군기자 송학용의 고백이 지금도 들려오는것만같은 그날의 전투실화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나의 종군생활에서 잊을수 없는것은 락동강 교두보—수암산전투이다.

…

당시 맥아더사령부는 자기의 공군을 총동원하여 우리 진지에 제2차 세계대전시 노르망디상륙전이후에 처음되는 대폭격을 가하며 자기의 지상부대를 엄호하였다.

…락동강상공은 원쑤를 삼킬듯 노호하는 우리 군단 포의 포성으로 뒤덮이고 수암산을 점령할 영예롭고 중대한 전투임무가 금강전투에서 명성을 떨친 한창봉련대장병들에게 부과되었다.

…적기들은 날마다 락동강대안에 폭탄을 무수히 퍼부었고 우리 인민군의 식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부근 인가를 모조리 불살랐으며 지어 사과나무, 감나무밭에까지 기총사격을 하며 보병지뢰탄장치까지 하여놓았다.

…미군고용병들은 수암산의 17일간 전투에서 30여차의 반돌격을 감행하고 매일 평균 3 000여발의 포탄을 퍼부었으나 우리 인민군대의 수중에서 수암산을 빼앗지 못하였다…》

교두보인 수암산전투가 것처럼 간고하였던만큼 린접인 우리 구분대의 도하장 역시 시시각각으로 정황이 위급해지곤 하였다.

사실상 락동강전투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적기가 날치지 못하는 밤이 되면 아군의 활무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낮에는 적기의

맹폭격을 피하여 은폐해있다가 밤이 되면 번개같이 도하장으로 달려나와 군복을 입은채로 강물속으로 자맥질해들어갔다.

한쪽에서는 모래가마니로 다리기둥을 쌓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격에 꺾어진 전주대를 목도로 날라다가 가름대로 건너질러 수중다리를 놓아가면서 포차와 포탄 차들을 수암산격전장으로 간신히 넘겨보내군 하였다. 그러느라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또 적기가 날아들어 수중다리를 통채로 떠내려보내군 하였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밤에도 조명탄을 가득 걸어놓고 도하장상공을 대낮처럼 밝히면서 집중포사격을 들이댔다. 낮에는 또 낮대로 강변에 우리 구분대가 은폐해있는것을 눈치채고 폭격기편대를 내몰아 련일 강녘을 바둑판처럼 누비며 맹폭격을 가하는 바람에 나 역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사실상 락동강엔 물이 아니라 피가 흘렀다. 그 불타는 락동강전투장에서 살아남아있는것 자체가 기적이였다.

주체39(1950)년 8월 어느날 중대장이였던 나는 한 미제침략군놈을 심문하게 되었다. 그놈은 락동강상공에서 돌아치다가 보총에 비행기가 얻어맞아 불시락하한 미군비행사였다.

온몸을 사시나무떨듯 하면서 안주머니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이며 제가 죽으면 처자가 굶어 죽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포로대우를 해줄것을 애걸복걸하던 놈이 불현듯 군복을 와락와락 벗어제꼈

다. 갑자기 그놈의 팔이 번쩍거렸다. 살펴보니 팔에 온통 시계가 감겨져있었다.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무고한 인민들이 원통하게 숨질 때 돈에 명줄을 건 그놈들은 피흐르는 거리에서 시계들을 걷어내며 희희낙락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포로가 아니면 막 찢어죽이고싶었다.

우리는 미제강도놈들이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감행한 야수적폭격과 만행에 대하여 증오를 금치 못하며 놈들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최후결전에 떨쳐나섰다.

미군과 괴뢰군은 바야흐로 부산앞바다에 처박힐 운명에 처하였다...

주체 41(1952)년 4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는 백송리를 찾으시었을 때 나는 영광스럽게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전망에 대하여 하시는 그이의 연설을 들으며 우리 대학생들은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았다.

-우리는 벌써 이긴 전쟁을 하고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승리한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승리의 그 빛나는 전통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있다.

어제날 미제에게 서산락일의 운명을 선고하였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머지않아 제2의 전승열병식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열을 받으며 성대히 진행하게 될것이다.

락동강의 병사혁명

전쟁로병 강영순

뽀얀 폭탄먼지가 눈앞을 가리우고 탄알들이 쉬임없이 귀뿌리를 스치었다. 적기가 저공비행하는 아츠러운 소리, 포탄, 폭탄들이 작렬하는 굉음, 병사들의 함성, 부상병들의 신음소리가 대안을 가득 채우고 파란색의 강물은 점차 피빛으로 변해갔다.

세상천지가 단번에 뒤바뀌는듯 락동강은 처절한 싸움마당으로 화해갔다.

락동강과 그 주변을 통채로 죽음의 구덩이로 만들려고 작정하였는지 적기들은 죽만의 콩알을 쥐어뿌리듯 미친듯이 폭탄을 퍼부었다.

우리가 었드린 곳에 비행기의 폭탄이 들썩워진 후에 두텁게 내려앉은 먼지를 털며 일어나는 병사들은 많지 못하였다.

우리는 쓰러진 전우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웨쳤다.

-살려야 한다. 전우들을 살려야 한다! 그러나 누구부터. 어떻게?-

눈물인지 피인지 모를 끈적끈적한 액체가 얼굴에 감쳐돌며 자꾸만 눈을 흐리게 하였다.

담가는 겨우 몇개뿐, 담가소대는 십여명...

-아, 전우들이 피흘리며 쓰러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속수무책이란 말인가.-

있는 힘을 다하여 뛰고 또 뛰는데 부상병들은 계속 늘어만 났다.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전우들의 옆을 눈물을 삼키며 그냥 지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슴아픈 순간도 있었다.

공기를 갈가리 찢으며 또다시 적비행기들의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갑자기 오금이 꺾이며 숨이 막혔다. 그러나 일어나서 또 전장을 누볐다.

-단 한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

살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중상당한 전우들이 마지막힘을 다하여 담가대원들의 다리를 잡는다. 그리고는 성성한 손을 가까스로 들어 자기 혁띠를 가리킨다.

담가병들은 누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 팔소매를 들어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으며 담가병들은 병사의 허리에서 혁띠를 벗겨 자기의 허리에 찬다. 그리고는 또 뛰어간다. 병사는 뛰어가는 담가병의 허리에서 살아움직이는것만같은 자기의 혁띠를 바라보며 마지막웃음을 눈가에 지은채 조용히 눈을 감는다.

혁띠에는 그 병사의 부대명이며 집주소들이 적혀져 있는 쪽지가 붙어있다. 그것은 죽어서도 조국앞에, 고향의 부모처자들앞에 떳떳하려는 병사의 량심과 마지막소원의 전부였다...

락동강계선에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명령을 받은 직후 제4보병사단 18련대 군의소에서는 후퇴조직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것으로 합시다.》

굵직한 군의소일군의 목소리에 장내는 침묵으로 대답하고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허리에 찬 여러개의 혁띠들을 매만지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려낸 우리 전우들인데 그들을 여기에 남기고 우리만 후퇴한단 말입니까.》

의견을 제기하는 애어린 처녀담가소대장인 나를 모두가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물론 여기에도 혁명조직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인차 재진격해나올수도 있겠지만 부상병들은 무조건 데리고 후퇴하자는것을 제기합니다.》

나의 완강한 제의에 더는 반대의견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담가소대 10여명을 포함한 50여명의 환자후송조가 조직되었다. 그중 걷지 못하는 중환자는 5명, 경환자는 30여명이였다.

책임은 담가소대장인 내가 지게 되었다.

준엄한 시련이 앞에 있음을 우리 후송조성원모두가 피부로 느끼고있었다.

적들의 검질긴 추격과 계속되는 비행기들의 폭격으로 낮에는 제대로 행군할수 없었다.

무장은 기관단총과 보병총 몇정뿐, 대다수가 부상병들이어서 산길을 타고 행군하는 속도는 매우 굼뎠다.

식량은 며칠분밖에 안되었고 행군도중에도 부상이 심한 병사들을 위하여 대오가 전진을 멈추고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오직 한생각, 절대로 적후에 떨어지면 안된다는 생각, 기어이 살아서 이들을 다 데리고 장군님의 품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북쪽을 향해 전진했다.

락동강전투에서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던것으로 하여 걷기가 매우 불편하였다.

한번 폭격을 받으면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부상병들을 찾는데 몇시간씩 걸리곤 하였다.

군관들과 구대원들이 모여서 차후문제를 토론하고 립시로 대오를 편성하였으며 대오에 강한 규률을 세울데 대한 결정을 내렸다.

담가소대원들과 경상자들중에서 전투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척후도 세우고 각이한 정황에서의 지휘 및 연락체계도 조직하였다.

대전근방에서 약품을 예견했던만큼 충분히 얻지는 못하였지만 제3대대 8중대의 구대원이었던 리춘권동무와 몇명의 다른 동무들이 역에서 새 무기들을 구해옴으로써 우리 대오는 전부 무장을 갖추게 되었다.

제일 어려운것은 약품과 식량의 부족이었다. 당장 처치를 받아야 하는 부상병들이 적지 않았는데 약품이 없으면 눈을 편히 뜨고 그들의 최후를 목격할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식량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맹폭격속을 뛰여다니며 적들이 버리고 달아난 자동차들에서 약품을 찾아내기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들에 내려가 식량이나 약품을 구해오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우리는 여러번 괴뢰군이나 치안대놈들과 맞다들려 힘겨운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화천저수지를 에돌아 북쪽으로 행군할 때에는 한 중환자의 출혈이 심하여 야산에 천막을 치고 나의 피를 수혈하기도 하였다.

나는 힘겨웁고 고생스러울 때마다 락동강에서 희생된 전우들, 우리가 다 구원하지 못한 전우들에 대한 생각으로 일어나곤 하였다. 락동강에서 떠고 온 희생된 전우들의 혁띠는 우리들이 순간이나마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않도록 짝 조여준 마음속조임띠였다.

모진 시련과 어려움속에 우리는 드디어 고산진부근에 도착하였다.

그때의 기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듯 한 그리고 락동강에서 구원하지 못한 사랑하는 전우들을 다 데리고 온듯한 환희를 체험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락동강기슭에 쓰러진 수많은 전우들의 모습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전쟁로병으로서, 담가소대장으로서 락동강의 병사혁띠를 풀지 않으리라 마음다지곤 한다.

팔공산아 기다리라

전쟁로병 최두수

원썩들의 마지막숨통을 조이면서 진해로, 부산으로 내달리자고 웨치던 백병전의 소음이 고이 간직되어있는 팔공산릉선의 높낮은 고지들을 그려보느라니 자기 몫까지 잘 싸워달라던 전우들의 당부가 생생히 메아리 쳐온다.

팔공산만 넘어서면 대구, 부산을 단숨에 짓몽개고 남해가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릴수 있었기에 우리는 팔공산점령에 병사의 모든 소원과 열망을 다 쏟아부었다.

한 고지를 놓고 적아간에 벌린 공방전은 얼마나 가렬했던가.

전진하는 우리의 한발자국에 적들은 수백발의 포탄을 쏘아댔다.

그때 우리 제8보병사단 83련대 2대대는 영천으로 향한 철길을 왼쪽에 두고 팔공산릉선 말단고지를 차지하고있었다.

하루밤에 8km이상을 전진한 우리들에게 고지를 빼앗긴 적들은 다음날 어둑새벽부터 전투기들을 내몰아 땅을 훑으며 기관총사격을 들이대고 폭탄을 떨어뜨렸다.

자지러지게 기관총탄을 란사하던 적기가 사라지자 적포탄들이 련거퍼 날아들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적의 류산탄이 퍼부어지고 소이탄은 땅을 불태웠다. 손바닥만한 큰 파편이 었드려있는 내옆의 키낮은 가독나무를 후려치자 손목굵기만 한 나무가 끊어져나갔다. 뒤이어 《후둑, 후둑》하고 주위의 어린 소나무들에 파편박히는 소리가 났다.

우리 분대는 고지로 올라오는 적보병들을 소멸해야 하였다.

무수한 불줄기를 그으며 머리우를 스치는 적의 총탄들과 포탄파편들에 귀는 멍멍해지고 고지를 삼킨 화염에 숨이 막혔다. 그 불도가니속에서 우리는 탄알을 아껴 적들을 조준사격했다.

갑자기 나와 멀지 않은 곳에서 사격하던 16살 난 대원이 아츠러운 비명을 터치며 이마를 싸쥐고 몸을 비틀었다.

나는 굴다싶이하어 부상당한 대원에게로 접근하였다. 나는 무작정 그의 머리뼈에 박힌 파편을 뽑아던지고 끊어진 경동맥에서 뿜어져나오는 피를 멈춰보려고 압박붕대로 그의 목을 싸맸다. 그러나 의식없는 그를 돌볼새가 없었다. 나의 전호결에서 세차게 불을 뿜던 경기관총이 떨어버렸던것이다. 내가 부분대장의 결을 잠깐 뜯은 그 순간에 적의 포탄파편이 경기관총사수인 그의 복부를 파렬시켰다.

소대의 위력이며 분대의 위력인 경기관총이 떨어지면

안되었다.

부분대장에게서 경기관총을 넘겨받으려고 줄폭탄이 떨어지는 사격좌지로 기여가보니 부분대장은 숨져가면서 나를 불렀다.

《분대장동무, 쏘시오! 계속 쏘시오!》

부분대장의 눈을 감겨주지도 못한채 나는 예비탄창을 바꿔 맞추고 다시 사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소대장이 파편에 눈을 잃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과 며칠전에 낮을 익힌 소대장과 벌써 헤어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이번에는 우리 오른쪽에서 적들을 답새기던 부소대장의 기관단총소리가 멎었다. 급히 고지정점으로 뛰어올라가보니 그의 붉은 피가 좌지를 물들이고있었다. 탄창은 텅 비어있었다.

나는 그가 마지막순간까지 방아쇠를 당긴 기관단총을 받아안았다. 그 총을 가슴에 안으니 부소대장 김광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것 같았다.

《제주도까지 해방하고는 이 총을 두수동무에게 꼭 인계하겠소!》

그 기관단총의 총가목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있었다.

《1950년 7월 12일 김덕기》

양양고급중학교 동창생이었던 김덕기는 련대자동총중대 대원이었다.

펜대를 총대로 바꾸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첫 전투였던 레천의 백마산전투때 그는 고지를 제일먼저 점령하

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공화국기발을 쫓은 그 고지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전의 기쁨을 나눌수 없었다. 적의 흉탄이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던것이다.

나는 련대에서 무기를 타왔다는 부소대장에게 그 총가목에 썩여져있는 무기수여날자와 이름을 보여주며 부탁했었다.

《통일된 다음에 이 총을 모교에 가지고가서 나의 학우 김덕기의 위훈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해를 눈앞에 둔 이 팔공산에서 소원을 이루지 못한 그의 기관단총을 인계받게 되었으니 복수로 녀을 태우는 나의 가슴속에는 김덕기의 이름뒤에 렬지어서있는 전사한 학우들의 이름들이 한명한명 새겨졌다. 그리고 전우들의 피스민 소중한 그 총에 내 이름도 써넣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이 굳어졌다.

나는 분대장들을 이끌어 전투지휘에 나섰다. 중대장마저 희생되었던것이다.

적들은 때주검을 쌓으면서도 검질기게 달라붙었다. 하지만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수행을 위한 길에서는 죽음도 영광이라는 철의 신념을 안고 싸우는 우리를 당해낼수 없었다.

격전이 지나간 고지에는 잠시 정적이 깃들었다.

그제서야 정신을 수습한 나는 중상을 당한 소대장에게로 달려갔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우리의 문학선생이 될수도 있었던 그는 청진사범대학(당시)졸업반학생이었다.

눈을 봉대로 싸맨채 후송을 미루며 고지에 남아있던 그는 전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보고나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를 찾았다.

《두수분대장. 시를 듣고싶구만.》

내 시구절의 마디마디가 생명수로 흘러 우리 소대장이 눈을 뜰수만 있다면, 저 미남자의 눈동자가 다시 빛날수 있다면!

나는 조국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 병사의 맹세를 담아 시를 읊었다.

눈물에 젖은 나의 시를 들으며 소대장은 웃고있었다. 복수기록장에 째짤이 적어보던 나의 즉흥시를 선참으로 읽어보며 부모님과 모교에 전해주자고 힘을 주던 그때처럼...

《동무들. 고맙소. 최후의 순간까지 고향앞에, 조국앞에 부끄럼없이 싸웁시다!》

전투개시 한시간만에 64명으로부터 22명으로 줄어든 중대는 다시 전투준비에 진입하였다. 적의 탄약을 거두어 예비로 저장한 우리는 소란스럽게 저공비행하는 적기들을 노려보며 전호를 더 깊이 파나갔다.

비행기로, 대포로 고지를 불바다에 잠그던 적의 공격을 오늘도 몇차례나 물리쳤던가.

어깨가 아프도록 쏘아댄 총탄은 얼마였던지 총신은 달아 불덩이마냥 뜨거운데 또다시 기여들 적을 앞에 두고 남은 수류탄을 세여보며 전호에 앉으니 보이는것은 하늘뿐이었다.

마치도 전쟁과는 인연이 없는듯 한없이 평화로운
고요가 병사의 머리우에 펼쳐져있었다.

날과 날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대한 적의 포화력은
눈에 띄게 증강되었다.

당시 오늘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전사가 래일의 전투
에서도 살아남으리라는 담보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
병사들은 자기의 전투성과를 전사한 전우들의 성과로
양보하고 그들의 전투공적으로 기록하면서 삶과 죽음을
생각밖에 버리고 판가리결사전을 벌렸다.

얼마후에야 적들의 인천상륙기도를 알게 된 우리는
적들의 대포위를 헤치며 전우들의 값비싼 희생과 피와
땀으로 차지했던 고지를 떠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랐다.

경상산맥의 련봉들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전우들이
《두수야, 너 어디로 가느냐? 이 낫설은 팔공산에서 울
리던 너의 기관단총소리가 우리를 잠재워주고있었는데
소백산준령을 넘어선다니 무슨 말인가?!》하며 나를 부
르는것만 같아 막 가슴이 미어졌다.

우주의 넓이만 한 희망과 포부를 가슴에 안은 애어
린 10대 청춘들을 남녘땅 무명고지에다 묻지도 못하고
떠나는 학우이며 전우인 나의 마음속에서는 한구절한구
절의 시가 복수의 불줄기마냥 쏟아져나왔다.

기어이 다시 돌아올것을 팔공산앞에서 맹세다지며
우리는 떠났다.

고지에 홀로 남아

전쟁로병 정세우

대대장은 나에게 중대를 인계하면서 명령하였다.

《야반산을 기어이 점령하시오!》

나는 정렬한 중대를 바라보았다. 중대로부터 소대로, 소대로부터 분대로 줄어든 중대인원은 취사원까지 모두 7명뿐이었다.

잠시후 새로 배속된 17명(대대에비대)까지 합쳐 2개 분대로 편성된 소대는 또다시 어둠을 타고 공격전예 나섰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걸을수 있는 길이였다.

적들의 강한 포화력에 어쩔새없이 폭풍에 날려 정신을 잃었던 내가 야반산을 점령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사람까지 결사전을 벌린 소대의 장렬한 최후에 대하여 들은것은 불과 몇시간전이었다.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야반산의 한치한치에 피를 뿌리고 청춘을 바쳤던가.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 15보병련대의 고사기관총분대장으로부터 9중대 1소대장으로 임명된지 열흘만에 두번째 소대를 이끌고 또다시 야반산으로 향하는 나의 두눈은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마루턱에 오르면 거제도가 눈앞에 보인다는 야반산. 진동리를 빙 둘러싼 고지중에서 제일 높은 고지인

이 산에 적들은 유리한 지형을 선택하여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있었다.

아군의 진격을 진동리앞 산고지방어선에서 저지시키려고 야반산에 《정예》중대를 배치한 적들의 반항은 완강하고도 검질긴것이였지만 아군의 15보병련대 병사들은 야반산을 탈환하였다.

적들은 강력한 포화력의 지원하에 아군력량보다 엄청나게 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야반산에 대한 반돌격을 개시하였다. 일진일퇴의 필사적인 전투를 거듭하며 병사들은 적들을 무자비하게 죽쳐버렸다. 언제부터인가 병사들은 이 야반산을 미군야만들의 시체가 쌓이는 곳이라 하여 《야만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 야반산전투에 참가할 때에는 15보병련대가 전투로 인한 유생력량과 전투기재들의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비대로 들어갔으며 린접인 22포병련대도 치렬한 전투를 거듭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고 후방으로 철수한 이후였다. 야반산은 또다시 적들의 수중에 장악되어있었다.

치렬한 격전을 앞두고 주체39(1950)년 8월은 저물어가고있었다.

적들의 예광탄이 분주히 떠오르는 야반산을 노려보며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곱씹어보았다.

-점령지역에서 1보도 퇴각하지 않겠다!-

이것은 전투를 앞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자는 결정서에 내가 남긴 맹세였다.

…고지는 끝내 다시 탈환되었다. 그러나 탈환한 고지를 사수하기는 몇갑절 더 어려웠다.

간밤에 빼앗긴 고지를 되찾기 위하여 적들은 날이 밝기도전에 포를 들이밀었다. 그 다음은 적기들이 고지를 짓이겼다. 폭격이 뜸해지자 미군 한개 대대가 이리떼처럼 덤벼들었다.

《살아서는 이 고지에서 물러설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불사신처럼 싸웠다. 한차례 적들을 물리치면 이어 적의 포탄들이 비오듯 날아왔다.

적들은 수적우세를 믿고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전우들은 하나둘 쓰러져갔다. 6차례나 적의 공격을 물리친 아침 8시경 고지에는 3명밖에 남지 않았다.

한순간 유별한 정적이 고지우에 깃들었다.

중대취사원에게로 달려간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합쳐진 두손우에 또 다른 손이 없혀졌다.

《물이 있소?》

갈증으로 갈라터진 입술을 감빨며 내가 던지는 말에 두 병사는 흠먼지가 두텁게 앉은 물통의 뚜껑을 열었다. 밀굽에 보일듯말듯 고인 물을 이윽도록 들여다보던 나는 달아오른 중기관총의 방열통에 물통의 물을 쏟아넣었다. 화독처럼 달아오른 얼굴에 물통을 꼭 가져다대 보고는 병사들도 자기들의 생명수를 깡그리 기울였다.

바로 그때 적들의 포가 또다시 아가리를 벌렸다.

《개새끼들아. 받아라. 내 어머니의 복수다!》

구대원은 어느새 가슴을 일으키고 경기관총으로

원썩들을 향해 맹사격을 퍼붓고있었다.

그에게 자세를 낮추라고 소리치고는 한참 중기관총을 휘두르던 나는 경기관총소리가 똑 끊기는 바람에 고개를 돌렸다. 고수머리구대원이 그만 적의 흉탄에 쓰러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서둘러 피범벅이 된 그를 가슴에 안았다.

《한발… 더… 쫓았으면…》

무엇인가 더 말을 할듯말듯 하더니 그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얼마후 고지우에는 나 한사람만이 남았다. 나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9시였다. 증원부대가 언제 오겠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미처 눈을 감지도 못하고 희생된 전우들의 손에서 총이며 수류탄을 《인계》받는 나의 가슴속에서는 피가 똑똑 떨어지는것 같았다.

(동무들, 마음놓고 눈을 감소. 내 기여이 살아 이 고지를 지키겠소!)

나는 모은 총들과 탄약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마음속에 전투준비구령을 힘있게 내렸다.

고지정면에 자동총 3정과 보총 2정, 경기관총 1정을, 우측에 자동총 3정을, 좌측에 자동총 2정을 배치한 나는 매 탄창마다 총알을 만장약하였다. 그다음에는 격발기를 당겨놓았다.

나는 선두에서 기여오르는 적들부터 침착하게 명중사격으로 소멸해나갔다.

정면에서 좌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24명이 섰던 전호를 지켜 나는 정신없이 뛰고 또 뛰었다.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 명령을 받으며 나는 지휘관과 병사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500m지점부터는 보총단발사격으로, 400m지점에서는 경기관총으로, 200m지점부터는 자동총, 수류탄으로 적을 소멸할것!

-적들을 될수록 접근시키지 말고 련속 죽칠것!

적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힐 때 나에게는 자기도 알수 없는 무서운 힘이 용솨음쳤다. 비발치는 탄우속으로 비호같이 날아다니는 나에게 두려움이란 없었다.

수십m나 되는 긴 참호에서 연방 자리를 옮겨가며 총을 휘두르던 나는 갑자기 흠칠하였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숨이 꺾 막혔다. 살금살금 우회한 적 한놈이 불과 몇보 안되는 거리에서 나를 향해 사격했던것이다. 나는 원쑤의 총구에서 연기가 나는것까지 보았다. 그러나 다행히 명중은 아니었다.

그놈이 재차 사격하려는 순간 나는 쥐고나가던 수류탄을 힘껏 뿌렸다. 안전못도 뽑지 못하고 던진 수류탄이 적의 철갑모를 때리고 떨어졌다. 기겁한 그놈은 뒤따라오던 적들과 한덩어리로 몽그러져 아래로 데굴데굴 내리굴었다.

나는 연거퍼 수류탄을 날렸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류탄은 멀리 나가지 못하고 매번 코앞에 떨어지곤 하였다. 다시 수류탄을 쥐려고 하였으나 잡히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든 나는 손을 살펴보았다. 나는 그제서야 손가락이 떨어졌다는것을 알았지만 아픔을 느낄새도 없었다. 적들의 포가 또 한바탕 고지를 마당질했던것이다.

불현듯 왼쪽다리가 빠져나가는듯한 감이 들었다. 얼마전에는 총알이 귀밑을 관통하고 손가락이 떨어졌는데 왼쪽다리까지 잃었다고 생각하니 고지에 홀로 남은 나의 마음은 더욱 비장해졌다. 나는 두손에 수류탄을 갈라쥐며 몸을 움쭉 일으켰다.

그런데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왼쪽다리가 끌려오지 않는가.

나는 어찌나 기뻐던지 고향을 칠번 하였다. 신바닥 뒤축이 파편에 떨어져나가면서 왼쪽발가락과 발뒤축살을 떼갔을뿐 아직은 걸을수 있었던것이다. 시계는 벌써 오후 3시를 가리키고있었다.

놈들의 공격은 점점 기진해졌다. 그럴수록 나의 신경은 더 팽팽해졌다. 바람소리도 발자욱소리로 들리고 풀잎이 흔들려도 미군놈들의 철갑모로 보였다.

극도로 긴장하여 전투정황을 감시하는데 후면으로 인민군복장을 한 사람들이 200m가량 접근해왔다.

(피뢰군놈들이 인민군복장을 하고 공격해오는것이 아닐가?)

조금전에도 피난민으로 가장한 적들과 조우전을 했던것이 생각났다. 나는 즉시 위협사격을 들이댔다.

《아군이요!》

오각별 빛나는 모자를 흔들며 달려오는 사람들은

분명 인민군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증원부대였다.

안도감이 깃드는 순간 온몸의 맥이 땅속으로 쭉 빠져 내리는것 같았다. 나는 전호가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짹짹한것이 입가로 흘러들었다. 나는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가위로 잘라낸듯 머리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내렸다. 웬일인가 하여 살펴보니 모자에는 총알구멍이 9개나 있었다...

나는 전선을 교방하고 대대지휘부에 도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전우들의 피가 뿌려져있고 그들의 시신이 묻힌 고지를 떠나기란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다.

대대장은 나를 힘있게 껴안았다.

《장하오. 13차례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단신으로 고지를 지켜낸 〈야반산의 호랑이!〉》

나는 허리를 곧추 펴고 섰다.

《나에게는 죽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잊을수 없는 모습

전쟁로병 채봉련

나는 조선인민군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 군의소 간호장으로 조국해방전쟁의 시작부터 전승의 날까지 복무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생각할 때면 나에게는 전투에

서의 위훈담보다도 락동강기슭에서의 충격적인 체험이 제일먼저 떠오르곤 한다.

우리 사단이 락동강계선에서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있던 때였다.

당시 사단지휘부에 있던 나는 어느날 의약품을 타러 사단군의소로 가게 되었다. 군의소로 가는 길은 험치 않았다.

적들의 포격과 비행기공습으로 하여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사단군의소가 있던 곳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군의소가 없었다. 다시 사단지휘부로 돌아오니 사단지휘부도 없었다. 그때 나의 뇌리에는 이제 는 나 혼자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덜컥 겁도 났다.

홀로 남은 나는 총을 메고 그날 락동강기슭을 오르 내리며 오랜 시간 사단지휘부와 군의소를 찾아헤맸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또 사단동무들을 찾아헤매다가 우연히 한 전사를 만났는데 그가 어디쯤에 군의소동무들이 있는것 같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정신없이 그곳으로 달려가보니 정말 여러명의 군의소 남녀대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었으며 군의소도 명령을 받고 떠났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고 분위기도 이상하였다. 일행의 책임자격인 군의소방역대장이 이제부터 일체 자기 명령이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다고 하며 일행을 오도가도 못하게 한자리에

잡아두고있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자는 대오를 통채로 적들에게 넘겨주려고 잡도리를 하고있었던것이다.

바로 그때 돌연히 한 군관이 나타나더니 우리들에게 여기 있으면 안된다, 최고사령부를 찾아가야 한다, 함께 갈 동무들은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것이였다. 방역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군관을 따라나섰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적비행기의 맹렬한 공습을 받아 우리는 저마끔 흩어지게 되였다.

나는 불타버린 어느 한 농가의 돌각담밑에 나어린 녀대원 한명과 같이 엎드리게 되였다.

우리앞에는 감나무 한그루가 있었는데 가지마다 감이 탐스럽게 달려있었다.

얼마나 배가 고했던지 무서움도 잊고 적비행기가 기총소사를 하며 내려쫓힐 때에는 엎드렸다가 상승할 때에는 감을 한알씩 따먹었다. 하여 온종일 입안이 텅텅 해있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후 우리들에게 최고사령부를 찾아갈 동무들은 자기를 따르라고 하던 군관을 다시는 보지 못하였다. 아마 그는 비행기폭격에 잘못된것 같았다.

폭격이 뜸해진 다음 강을 건지기 위해 강기슭을 오르내리던 우리는 락동강의 끊어진 다리기둥밑에서 30명 정도의 다른 부대성원들을 만나 함께 행동하게 되였다.

밤이 되자 그들은 통나무 석대를 어데선가 끌고와 그것을 타고 강을 건느자고 하였다.

우리가 통나무에 의지하여 얼마쯤 강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발견한 적들이 포사격을 해대었다. 놈들이 조명탄을 쏘올리며 맹사격을 하는바람에 우리는 되돌아 헤엄쳐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강대안의 풀숲에 몸을 숨기고 어떻게 강을 건널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어올무렵 너무도 뜻밖에 사단공병대대 동무들이 나루배 한척을 가지고 나타났다.

기쁨과 놀라움속에 무작정 팔소매를 부여잡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사단장동지가 강을 건너지 못한 동무들이 있으니 무조건 찾아서 함께 돌아오라는 명령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 일행은 적들의 경계를 뚫고 무사히 락동강을 건널수 있었다.

강기슭에서는 사단장 최현동지가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사단장을 보니 마치도 죽음의 기슭을 홀로 헤매다가 어머니를 만난 철부지자식처럼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그는 도착보고를 하는 나에게 대오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이르고나서 사단군의소와 함께 행동할것을 명령하는 것이었다.

《알았습니다. 죽어도 대오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나는 힘차게 대답하였다...

그후 나는 준엄한 적후 제2전선투쟁과 가렬한 1211고지 방어전투를 거쳐 승리의 그날에는 전승열병식에도 참가하였다.

지금도 조국해방전쟁시기를 추억할 때면 나의 뇌리

에는 내 명령을 들으라, 절대로 움직이면 안된다고 하던 방역대장과 최고사령부를 찾아가야 한다고 웨치던 군관의 모습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며 영화화면처럼 생생히 떠오른다. 그리고 적후에 떨어진 한명의 병사도 모두 구원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으로 데리고가기 위하여 애쓰던 항일혁명투사인 부대지휘관의 모습이 두 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불타는 락동강은 나에게 혁명전사의 신념과 의리가 어느때 그 진가가 검증되는가를 영원히 잊을수 없는 모습으로 새겨주었다.

105땅크사단의 용사들

전쟁로병 리덕배

락동강까지 진격하였던 인민군부대들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랐다.

충청남도 천안군에서 적패잔병들과 계급적원수들을 숙청하고 당, 인민정권건설사업을 보위하던 우리 보안중대는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근위서울 제105땅크사단 특수정찰대대에 급히 배속되어 사단주력과 함께 북으로 행군해갔다. 나는 문화부중대장이였다.

사단은 후퇴하는 인민군부대들을 포위하려는 적들을 견제할 임무를 맡고 수원쪽으로 강행군해가고있었다.

땅크와 보병들로 이루어진 대오앞에는 땅크 2대가 척후로 앞서나가고있었다.

그런데 인천에 상륙한 적들이 이미 수원에까지 들어 온줄을 아군은 모르고있었다. 아군의 척후땅크들은 수원에 들어서자마자 불의에 적들과 조우하게 되었다. 정황은 대단히 위급하였다. 척후에서 달리던 땅크들과 뒤따르는 주력부대와외의 거리는 약 2km정도 되었다. 적과 아군과의 력량은 대비도 되지 않았다.

이미 시내에 들어선 척후땅크들은 결사전을 각오하였다. 더 나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러설수도 없는 정황이었다. 그들은 뒤에 있는 아군주력부대에 긴급연락하여 행군방향을 돌리게 하고는 적들을 향해 돌입하였다.

불의에 아군땅크들의 공격을 받은 적들은 혼비백산하였다. 아군땅크들은 고속으로 수원시내를 종횡무진하면서 적들의 전투기술기재들과 병영들에 불벼락을 들썩였다. 여기저기서 불기둥이 치솟고 적들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한동안 혼란에 빠졌던 적들은 급기야 사태를 수습하고 반공격해왔다.

아군땅크 2대에 술한 미제침략군놈들과 괴뢰군놈들, 지어는 미군이 들어왔다고 환영을 하던 반동놈들까지 이를 갈며 맞섰다. 적들은 수원시내에 들어와있던 저들의 땅크들과 포화력을 동원하여 우리 땅크를 향해 맹공격을 들이대었다.

우리 땅크에 포탄이 떨어지자 적들은 까맣게 땅크에 몰려들었다. 땅크병들은 땅크에 매여달리거나 기어오르

는 적들을 포탑을 휘둘러 휘뿌려던지고 계속 이리저리 땅크를 몰아가며 무한계도로 놈들을 짓몽개버렸다.

적포탄에 맞아 무한계도가 끊어지고 연유가 떨어져 땅크들은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적들이 땅크에 달라붙었다. 땅크병들은 기관단총을 휘둘러 적들을 쓸어눕혔다. 총탄마저 떨어지자 그들은 온몸이 육탄이 되어 놈들과 맞섰다. 땅크주위에는 적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깔렸다.

땅크병들에게 최후의 시각이 닥쳐왔다. 단 2대의 인민군땅크한테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에 악에 반친 적들은 부상당한 땅크병들에게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쓰러지는 마지막순간에 땅크병들은 《김일성장군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땅크병들의 비장한 최후를 목격한 전우들은 이 이야기를 소대와 중대, 대대들에 전하며 피눈물을 삼켰다.

나는 중대전사들과 땅크병들의 복수를 다짐하며 임무를 받은대로 오산으로부터 수원으로 넘어가는 고지를 차지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부대의 무장장비는 적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했다.

우리 중대는 대도로를 맡았다. 미제침략군이 빠른 기동수단을 리용하여 대도로를 따라 공격을 시도할것이 분명하기때문에 중대지휘부에서는 도로량옆에 중기관총들을 전개하였다.

이윽고 아군방어력량을 정찰하기 위하여 적짚차들이 고속으로 달려왔다. 중대지휘부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가 종심깊이 침입한 적짚차들이 되돌아갈 때

명중사격을 퍼부을것을 결심하였다.

아니나다를가 한참만에 대도로를 따라 찢차들이 쾌속으로 되돌아 달려왔다. 전사들은 이를 갈며 부르짖었다.

《반아라. 땅크병들의 복수다!》

중기관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찢차들에 불이 확 당겼다. 미군정찰장교들과 사병들은 모두 즉사하여 길바닥에 너부러졌다.

전투는 계속되었다.

다음날 적들은 포지휘기를 공중에 띄워놓고 무려 3시간동안 아군방어전방에 집중포사격을 가하였다. 포사격의 엄호하에 적들은 장갑차 2대를 앞세우고 사격권안으로 접근해왔다.

병사들의 웨침이 참호의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땅크병들의 피값을 받아내자!》

야무진 반땅크총소리에 뒤이어 선두장갑차가 화염에 휩싸였다. 뒤따르던 장갑차들도 주저앉았다. 전사들은 중기관총연발사격과 각종 저격무기물사격으로 장갑차뒤에 선 미군놈들을 삼대베듯 무리로 쓸어눕혔다. 살아남은 적들은 황급히 달아났다.

전과는 컸다. 중대는 적의 장갑차 3대를 파괴하고 많은 미제침략군놈들을 살상하였다.

방어전이 시작된지 닷새되는 날 오후, 3소대의 연락병이 전호에 뛰어들면서 소리쳤다.

《문화부중대장동지. 소대장동지가...》

전호우에 뛰어오른 나는 고지를 뒤덮은 포연을 헤치며

3소대전호에로 달려갔다.

소대장은 심장부위에 직탄을 맞고 쓰러져 가슴에서 피를 쏟으며 가쁜숨을 몰아쉬고있었다. 나는 그를 끌어 안고 안타까이 흔들었다.

《용후야! 소대장!》

소대장은 간신히 눈을 뜨다말고 온몸의 힘을 모았다.

《문화부중대장동지…》

그리고는 눈을 감고 끝끝내 머리를 떨구고말았다. 전우들이 목메어 불렀으나 그는 영영 대답이 없었다.

나는 련락병을 시켜 내가 쓰던 군용모포를 가져오게 하였다. 나는 전우의 피물은 당원증을 꺼내여 내 당원증과 함께 가슴에 품고는 시신을 모포로 정히 싸다. 물병에 《105땅크사단 특수정찰대대배속 천안보안중대 제3소대장 임용후 함남도 장진군 장진면출신》이라는 글씨지를 넣고 희생된 전우와 함께 정성껏 묻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국이 통일되면 전우의 피가 스민 이 땅을 다시 찾으리라 마음먹으며 나는 시신이 묻힌 곳을 지도에 표시하고 가슴에 품었다…

우리 중대는 가렬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적아간에 력량상차이는 너무도 심하였다. 10여일간의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중대가 차지한 계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이 적의 포위에 들수 있었다. 이것을 잘 알고있기에 전투원들은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결사전을 벌릴 비장한 각오를 안고 고지를 지켜 용감히 싸웠다…

조선인민군 근위서울 류경수제105땅크사단의 자랑스러운 군기에는 이렇듯 전화의 나날에 조국의 무쇠주먹이 되어 한사람이 백천의 적들을 짓밟개버리며 마지막 피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영용하게 싸운 유명무명의 용사들의 위훈이 진하게 스며여있다.

경활무쌍한 빨찌산전법으로 싸워

전쟁로병 손상조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린 통쾌한 전투들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전쟁 제3계단시기 수천리 행군과정에 있었던 전투들이다.

우리 련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강원도일대에서 적후투쟁을 벌렸다. 부대지휘관은 항일혁명투사 김철만동지였다.

부대의 임무는 양구군과 춘천시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서울시로 통하는 도로를 막아 군수물자수송을 차단하는 것이였다.

어느날 부대는 행군하던중 괴뢰군 한개 대대와 불의에 맞다들리게 되였다. 옆릉선으로 행군해가던 적들이 먼저 우리쪽에 대고 총을 한방 쏘았다. 우리는 계속 행군을 다그치였다. 놈들은 제편인줄 알았던지 산릉선아래로 내려갔다.

이때 정황을 예리하게 판단한 련대장이 부대에 전투 명령을 하달하였다.

자동총중대는 정면으로, 1대대 2중대는 좌우릉선으로 공격할것, 1중대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정찰소대는 련대지휘부와 함께 행동할것...

놈들은 중기관총 6정과 경기관총 10여정, 60mm포 10~15문에 자동총으로 무장하고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높은 곳에 위치하여있고 놈들이 차지한 계선의 아래에는 강이 있었다. 특히 적들은 우리를 자기네 부대인줄 알고 해이된 상태에 있었다. 무력상으로 우세한 적을 유리한 지형조건을 리용한 습격전법으로 타승하려는것이 련대장의 결심이였다.

오후 3시경 신호총소리가 울렸다. 전투원들은 정면으로, 좌우측으로 만세소리를 높이 부르며 일제히 돌격하면서 놈들에게 불벼락을 들썩웠다. 얼마나 혼비백산했던지 놈들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무리로 쓰러지거나 강물속에 뛰어드는 등 살구멍을 찾느라고 갈팡질팡하였다.

탄알을 있는껏 적들에게 다 퍼부은 나는 놈들한테서 로획한 3자루의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였는데 20~30m 밖에 안되는 거리에서 무리로 너부러지는 원썩들의 물골을 보기란 정말 통쾌하였다.

이날의 승리는 우리 전투원들로 하여금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전법의 위대성을 실전을 통해 가슴뿌듯이 느끼게 한 계기로 되였다.

양구군과 춘천계선에서 적의 후방을 차단하며 2달

남짓이 싸우던 우리는 이 지역을 아군 주력부대에 넘겨주고 그해말 적의 방어진을 뚫고 중심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날 밤 9시경 우리가 평창-북평계선을 통과할 때였다. 가까운 면소재지근방에 200~300호정도의 큰 부락이 있었는데 집집에 20~30명씩 피뢰군놈들이 들어가 굶아떨어졌다는 정찰보고가 들어왔다. 서울에서 150리 길을 행군해온 피뢰군 29련대였다.

련대장은 즉시에 전화선을 절단하고 도로를 차단하며 야간습격전을 벌릴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밤 11시 련대장의 신호총소리와 함께 우리 전투원들은 일시에 돌입하여 놈들에게 수류탄벼락을 안겼다. 집에서 뛰어나오는 놈들은 기관단총련발사격으로 썩눅혔다.

나는 이 전투에서 기관단총 두 탄창과 4개의 수류탄을 다 쓰고도 모자라 로획한 총과 수류탄으로 적들을 소멸하였다. 이날처럼 적을 많이 죽친적은 처음이었다.

피뢰군 29련대가 녹아난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예상치 않게 놈들이 상당한 무력을 동원해서 사면을 포위했다. 놈들은 정찰기를 띄우고 방송까지 불어대면서 투항을 요구하였다. 우리 부대는 완전포위망에 빠져들었다. 부대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험한 시각이 닥쳐왔다.

어려울 때면 병사들은 지휘관의 모습부터 바라본다. 우리가 본 련대장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태연하였다. 역시 항일의 혈전장에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싸운 항일투사가 달랐다.

김철만련대장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태연하게

모두 싸움준비를 하라고 한 다음 군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그는 결사전을 준비하자, 만약 날이 어두울 때까지 놈들이 달려들지 않으면 약한 고리를 돌파하고 빠져나가자, 1937년에 일제놈들의 포위를 뚫고나간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투사가 체험담으로 들려준 령활무쌍하고 신출귀몰하는 유격전법은 지휘관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련대장이 예견한대로 견고한 포위진을 형성한 놈들은 우리를 굶겨죽이거나 얼어죽게 할 심산인지 날이 어두워지는데도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부대는 즉시 행동으로 넘어갔다. 련대장은 정찰참모에게는 피뢰군 대령군복을 입히고 정찰소대장은 피뢰군 소대장차림을 시킨 다음 선두에서 대렬을 인솔하였다. 전투준비를 갖춘 련대는 도로를 차단한 놈들의 앞으로 제법 구두발소리까지 내면서 보무당당히 행군해갔다.

300m가량 다가갔을 때 《누구야! 셋!》하는 적의 고함소리와 함께 격발기당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맨 앞에 선 련대장은 대담무쌍하게 《나야! 나!》하고 태연히 응대하면서 적들에게 계속 접근했다. 적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련대장은 갑자기 《너희들, 다 일어나라!》라고 호되게 명령하였다.

이어 정찰참모가 앞에 나서며 《어서들 일어나지 못해!》하고 무섭게 소리를 쳤다.

좌우풀숲에서 30여명의 적들이 일어났다. 련대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벼락같이 명령조로 말했다.

《어서 내려들 와!》

그의 불호령에 기가 죽은 놈들은 배낭을 멘채 총을 어깨에 걸치고 어정어정 내려왔다. 정찰참모가 바싹 다가가서 놈들이 더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번개같이 권총을 내들고 《손들지 않으면 모조리 썩죽이겠다.》고 소리 치자 놈들은 완전히 얼이 빠져서 두손을 버쩍버쩍 쳐들었다. 우리는 놈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통행암호를 알아낸 다음 포로병을 길안내로 선택하여 총소리 한방 내지 않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나올수 있었다…

이렇게 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슬하에서 성장한 항일투사의 지휘를 받으며 싸움법을 배우고 승리해온 위훈에 찬 전투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있다.

《마팔산》 주사약

전쟁로병 안성근

주체39(1950)년말부터 주체40(1951)년 초엽 제2전선에는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였다. 우리 군인들을 멸살시키고 후방인민들을 교살하며 고착된 전선을 돌파해보려고 미군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세균무기를 사용했던것이다.

우리 전사들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시

며 전염병치료에 필요한 《마팔산》이라는 주사약을 품들여 구해오도록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전선에 속히 약품을 보내주도록 긴급대책을 취해 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당시 군의국 의품관리부 군관이었던 나는 약품호송임무를 받게 되었으며 평양에서 황성까지 적후를 뚫고 수천리를 달리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나와 운전사 1명, 호송병 1명이 전부였다. 권총 한정, 기병총 한정, 자동총 한정을 가지고 우리는 적후를 돌파해야 했다.

기껏해서 권총 몇발밖에 쏘본적 없는 20살의 나로서는 적후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가늠조차 할수 없었다.

죽을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다만 것처럼 중대한 임무가 바로 나에게 맡겨졌다는 책임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기어이 수행하리라는 결사의 각오뿐이었다.

우리가 적후로 떠나던 주체40(1951)년 1월 하순 봉인한 송장을 넘겨주며 이윽도록 나의 얼굴을 들여다 보던 군의국 일군이 물었다.

《제기할것이 없겠소?》

《최악의 경우에 사용할 수류탄과 폭약을 주십시오.》

드디어 만단의 준비를 갖춘 우리는 철저한 위장을 끝낸 자동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하였다. 상원, 연산, 수안, 김화를 거쳐 적후에 진입하는 순간 나에게는 명령을

무조건 수행할것을 당부하며 군의국 일군이 강조하던 조항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졌다.

첫째; 약품호송을 최대극비로 엄수할것

둘째; 목적지까지 전속으로 전진할것

셋째; 적의 총포탄피해를 받지 말것

넷째; 최악의 위급한 정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것

나에게는 차츰 적후에 대한 표상이 서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우리는 약품이 든 배낭을 지고 산릉선을 따라 은밀히 행군하는것이 아니라 자동차발동소리를 울리면서 공개적으로 적진을 헤쳐가고있었다. 임의의 시각에 적들과의 조우전이 진행될수도 있었다.

만약 적들과의 조우전에 말려든다면 적은 인원과 보잘것없는 무기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벌써 자멸이었다.

적아구분이 어려운 적후에서 우리는 적군도 아군도 될수 있는것 만나지 말아야 하였다. 그것이 곧 적후군단의 전투력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고있는 적들에게 비밀을 지키고 시간을 단축하며 귀중한 약품을 보호하는 길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이 담겨져있고 수백수천명 적후전선전우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의약품은 우리 세사람의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이였다.

2월초에 춘천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점점 더 힘들워졌다. 그전까지는 항공감시와 경비조직을 잘하고 한명밖에 없는 운전사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주는것이 중요

한 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한걸음이라도 전진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이 초미의 문제였다.

그 어느 룡선, 그 어느 골짜기도 차를 타고 무난히 지나갈수 없었다. 새 룡선이 나타나면 나는 차를 은폐시키고 앞으로 뛰어가서 골짜기를 정찰해야 했다. 다음 룡선도, 또 다음 골짜기도...

나는 늘 칼바람을 맞으며 차보다 앞서달렸다. 내가 달린 거리만큼 차도 전진했고 내가 멈춰서면 차도 멎어섰다. 게다가 도로는 온통 폭탄, 포탄에 파헤쳐지고 다리는 거의다 파괴되어 우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나마 달릴수 있는 도로엔 적들이 곳곳마다에 뿌려놓은 폭발물들이 교묘하게 위장되어있었다. 그런 길이 밤낮으로 계속되고나니 마지막에는 눈을 뜰 맥조차 없어졌다.

때없이 터져오르는 총포소리에 심장은 얼마나 타들었던가.

더우기 안타까운것은 백설강산에서 자동차를 은폐위장할 방도가 없는것이였다. 강냉이짚이나 불탄 나무들의 아지를 잘라서 위장할수 있는 그런 다행한 기회는 사실 많지 못하였다.

접전을 피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은폐한 그런 날이면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하여 더욱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야밤삼경에도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렸다. 그앞에서는 내가 백포를 흔들면서 내달렸다.

시련에 찬 날과 날은 흘러 마침내 우리는 1차지점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후군단군의부는 예비지점으로 옮겨가고 없었다. 간고한 행군로가 우리의 시간을 너무도 지체시켰던 것이었다.

1차지점에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비지점을 확정한 우리들은 또다시 100여리 먼 길을 떠났다. 그 길에서 겪은 호송조의 시련에 대해서는 체험자인 나로서도 다 형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모든것을 이겨내게 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으니 그것은 중대한 약품호송임무를 맡았다는 책임감이었다.

끝끝내 예비지점에서 군단군의부일군들과 병사들을 만나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잊을수 없다.

말그대로 대환성이 터져올랐다. 우리 일행을 에워싼 적후군단병사들의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이었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험악한 길을 뚫고들어온 영웅들에게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같은 평범한 병사들을 위하여 이처럼 많은 약품을 적후에까지 보내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 저희들의 인사를 꼭 드려주십시오.》

군단군의부에 약품을 한대의 파손도 없이 넘겨준 순간이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이 그자리에 쓰러졌다. 굶주림을 이겨내며 며칠동안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한 우리들이었다. 쓰러지면서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전우들속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적들의 통신선으로 우리의 통신을

전쟁로병 지히약

주체 40(1951)년 여름부터 아군은 전전선에 걸쳐 적극적인 진지방어로 넘어갔다.

우리 통신병들에게는 조성된 정황에 맞게 유선통신을 보다 견고하게 조직해야 할 절박한 요구가 나섰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적들의 무차별적인 포격, 폭격에 바위마저 부서져 재가루가 되는 형편에서 부대의 유선통신을 보장한다는것은 참으로 간고하고 어려운것이였다.

특히 돌바위고지는 적들의 가장 심한 쏘구역으로서 인원류동은 물론 통신선이 실새없이 두절되곤 하였다. 하지만 우리 통신병들은 부대의 지휘통신을 1분1초도 중단할 수 없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포화속을 헤치면서 산산이 흩어진 선들을 한토막, 한토막 찾아내어 한뼘두뼘 연결해나갔다. 예비선이 떨어지면 무기소제대로, 그것도 모자라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면서...

여느때에도 그러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 통신병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귀중한것이 통신선이였다. 통신선만 많으면 무서울것도 두려울것도 없었다. 우리는 자나깨나 통신선, 통신선 하면서 속을 태웠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적을 피로케

하라는 최고사령부의 전투명령을 받아안게 되었다. 이 명령을 받들어 가는 곳마다에서 땅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활동, 적후파괴조활동 등 적들을 부단히 소멸약화시키기 위한 전투활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우리들도 습격전으로 통신선을 로획하여 부족되는 통신선을 해결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소대는 주체41(1952)년초부터 정찰병, 공병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여러차례에 걸쳐 적중심깊이 들어가 적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수많은 통신선을 로획하였다.

적진에 들어가 적의 통신선을 로획한다는것은 결사전을 동반하는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사전준비를 면밀히 하였다. 아군진지에서 854.1고지 칼릉선과 장화고지에 대한 지형지물, 방어체계, 통신체계, 지휘지점들, 잠복초소, 순찰정형 등 세부적인 정찰을 끝낸 다음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소대원들은 저저마다 앞을 다투어 습격조에 망라시켜줄것을 제기해나섰다.

드디어 용감한 통신병들은 야밤삼경에 적진으로 진출하였다.

공병의 안내로 적의 지뢰원과 가시철조망을 극복하였고 정찰병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적의 지휘지점, 유선통신체계, 잠복초소 등을 재확인하였다. 조별로 1, 2, 3지점에 은밀히 접근한 습격조는 손전지신호에 따라 동시에 선을 끊은 다음 재빠른 동작으로 선을 걷기

시작하였다. 팔에 감거나 땅우에 굴리면서 선타래를 적당히 만들어 바줄로 묶어 끌면서 모두가 무사히 아군진지로 돌아왔다. 우리 통신병들이 아군진지에 들어섰을 때에야 기미를 차린 놈들은 조명탄을 쏘아대면서 발광하였다.

로획한 선으로 련대방어지역의 유선통신을 이중삼중으로 견고하게 조직함으로써 유선통신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우리 부대가 854.1고지를 사수하고있을 때였다.

자정이 훨씬 넘은 깊은 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작전대에서 사단전방지휘소에서 전투를 지휘하고있던 군단장동지와 고지에서 한창 전투를 지휘하고있는 조동철대대장과 여러차례의 작전지휘통화를 진행하시였다.

854.1고지를 지켜싸우는 대대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매우 반갑다고, 열다섯차례나 집요하게 달려드는 적들의 대병력을 물리쳤으니 참으로 장하다고 치하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전달받은 전투원들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고지가 떠나갈듯 부르고 또 불렀다.

중간전화소 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통신병들 역시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그후 우리 소대는 사단, 군단의 여러차례의 감사를 받았다.

철령을 넘나들며

전쟁로병 차용구

1211고지와 동부전선일대에 대한 보급로에서 적기의 발악이 가장 우심했던 곳은 신고산벌판과 철령이었다.

평양에서 포탄과 연유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실은 우리 운전사들은 적비행기의 야만적이고 악랄한 폭격속을 뚫고 이틀에 한번씩 신고산벌판과 철령고개를 목숨 걸고 넘나들며 전선수송임무를 보장하였다.

신고산도로와 철령이 중요한 군사적요충지이기때문에 적비행기가 낮에는 물론 밤에도 수시로 이 지역상공에 나타났으며 조명탄으로 대낮처럼 밝게 비치면서 지나가는 운수차들에 대하여 줄폭탄을 퍼붓고 기총사격을 해댔다.

신고산에서 철령에 이르는 도로는 은폐장소가 없는 개활지대가 몇십리 뻗어있어 오직 적기의 눈을 피해서만 달려야 하는 자동차운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간이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쏘구역이었다.

이런 구간에서 한대의 자동차라도 적기의 습격으로 불이 달린다든가 고장이 난다면 도로는 순식간에 생사를 판가름하는 전투장으로 변한다. 사고가 난 자동차를 지체없이 처리하지 않으면 뒤따르는 수십대의 자동차대

렬이 조명탄을 걸어놓고 길목을 지키고있는 적기에 의해 헤아릴수 없는 손실을 당할수 있기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앞차가 기총사격을 받고 멎거나 고장이 나거나 하면 뒤따르던 자동차운전자들은 모두가 앞차로 달려가 한마음이 되어 불끄기와 고장퇴치에 달라붙는다. 폭격과 기총사격으로 불길이 치솟고 탄약상자들이 팡팡 터지는 속에서 조명탄의 맹렬한 불빛을 받으며 벌리는 구출작업은 그야말로 결사전이였다. 신고산벌판의 도로 위에서는 하루밤에도 이런 결사전이 몇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런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고도 차를 구출할수 없게 되면 그것이 설사 자기의 차라고 해도 길가의 도랑속에 밀어 넣고 통로부터 개척해야 한다. 그래야 뒤에 연유나 포탄을 만재하고 늘어선 수십대의 자동차들을 구원할수 있는것이다. 이런 결사전에서는 언제나 자기희생정신이 발휘되었다.

113호차의 책임운전사는 의용군출신의 한형수동무였다. 나는 그 차의 협조원이였다.

어느날 중대민청초급단체 위원장이였던 내가 강습에 참가하여 협조원자리가 빈 사이에 책임운전사는 전선의 용사들이 포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는데 순간인들 지체할수 있는가고 하면서 협조원없이 단독으로 차를 몰고 전선으로 나갔다. 탄약을 만재한 113호차는 한밤중에 신고산개활지대를 달리다가 불의에 적기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협조원이 없는 한형수운전사는 아츠러운 기총사격소리가 울려서야 자기 차가 적기에게 발견되었

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벌써 적재함에 불이 달리었다. 뒤에는 수많은 포탄차와 휘발유차가 꼬리를 물고 달려 오고있었다.

한형수동무는 전조등을 환히 켜고 불붙는 자동차를 전속으로 몰아 전선수송로가 아닌 사이길로 들어섰다. 자기 차는 폭파되더라도 뒤따르는 수십대의 자동차를 구원해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을 내린것이였다.

적기는 전조등까지 환히 켜고 불길을 내뿜으며 달리는 113호차에 정신이 팔려 저공으로 그뒤를 쫓아가며 기총사격을 계속하였다.

얼마후 자동차는 급정거하였다. 그 순간에 폭음이 울리고 113호차는 폭발하였다. 한형수운전사는 이렇게 한몸을 바쳐 수십대의 자동차를 구원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불타는 자동차에 눈길이 팔려 저공비행하던 적기는 어느한 산중턱에 부딪쳐 박산이 났다고 한다.

한형수운전사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져있었다. 입당하면 당원증을 소중히 보관하려고 가슴에 늘 메고다니던 빈 당원증주머니만이 겨드랑이에 끼워 생생하였다. 우리는 그를 조선로동당원으로 부르면서 비분의 눈물속에 그와 영결하였으며 그가 그토록 귀중히 간직하였던 당원증주머니를 그의 가슴우에 소중히 얹어주었다...

신고산별관의 쏘구역을 벗어나면 아아하니 높이 솟은 철령이 앞을 막아선다. 생사를 판가름하는 신고산도로의 쏘구역을 무사히 돌파한 운전사들은 승리의 쾌감을 안고

노래들을 불렀다. 차창으로 밀려드는 아카시아의 꽃향기와 록음방초의 훈향을 맡으며 우리가 자주 부른 노래는 《자동차운전사의 노래》와 《신고산타령》이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매번 오래가지 못하였다. 음침한 밤하늘에 발동기소리가 울리고 적폭격기의 검은 형체가 또다시 운수차들을 위협하였다. 적기는 철령의 상공에 조명탄을 열댓개씩 주련이 걸어놓고 자동차우리만 번뜩거리도, 담배불만 깜박거리도 줄폭탄을 퍼붓고 기총사격을 자지러지게 해대었다. 산이 쩌렁쩌렁 울리고 골짜기가 와릉와릉 울렸다. 폭탄파편이 뿜뿜 날고 벼랑터길이 무너져내리며 불길이 하늘에 치솟았다. 환한 조명탄불빛밑을 우리 운전자들은 결사의 각오와 승리의 신심을 안고 위장한 자동차를 전선으로, 전선으로 몰아나가곤 하였다. 조향륜을 틀어쥐고 적기와 벌리는 초긴장속의 전투였다.

우리가 동부전선에 가는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첫 시기에는 미제침략군놈들의 야간비행술과 사격술이 유치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 놈들은 철령상공에 야간비행기 한대를 띄워놓았다. 적기는 조명탄을 여라문개씩 띄워놓은 다음에야 되돌아와서 조명탄불빛아래 있을 자동차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대담하고 용감한 우리 운전자들은 적기가 조명탄을 떨구는 동안 그 불빛을 리용하여 전속력으로 달렸으며 적기가 조명탄을 다 걸어놓고 되돌아올 기미가 보이면 날쌔게 산그늘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적기는 목표물을 잃고 소경막대질 하듯 허튼

곳에다 폭탄을 마구 뿌리고 눈먼 기총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적기라고 머저리짓을 계속하지는 않았다.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놈들은 밤마다 철령상공에 폭격기 2대를 동시에 띄워놓았다. 한대는 앞서 가면서 조명탄을 걸고 한대는 그뒤를 바투 따라가면서 지상에서 움직이는것은 모조리 소멸할 기세로 기총사격을 하고 폭탄을 퍼붓는 전술로 나왔다.

하지만 우리 운전사들은 적들의 간교하고 악랄한 책동에도 굽어들지 않았다. 운전사들은 적의 조명탄불빛 밑에 들게 되면 대담무쌍하게 최대속력을 내어 적탄이 미치지 않거나 조명탄불빛이 가리워지는 산굽인돌이로 차를 은폐시켰다.

철령은 아흔아홉굽이라고 할 정도로 굴곡이 많다. 철령의 자연지세를 리용하여 대담하게 행동하는 운전사들은 적기가 하늘에서 아무리 지랄쳐도 위험속에 빠진 자기 자동차를 구원하군 하였다. 그때 운전사들이 당하는 위험은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였지만 용감무쌍한 운전사들은 목숨을 서슴없이 내대고 모험을 하면서 전선수송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평양에서 1211고지부근까지 갔다오는데 이틀이 걸렸다. 우리 운전사들은 캄캄한 야밤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누구나 그 화선천리길을 이틀간에 달리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중대의 모범운전사 최준명의 형제는 적기의 활동습성을 면밀히 연구하고 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

고 불길속 천리길을 하루밤사이에 돌파하군 하여 《씩씩기차》로 소문떨치였다...

수송로가 통하는 길가의 주민들도 모두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어느날 야간운행을 마친 우리는 자동차를 은폐시키고 법동군 어느 농촌집에 찾아들어가 아침밥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집안에서 신음소리와 함께 가냘픈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는 환자라오. 부엌에 뿔나무도 있고 부뚜막에 소금과 된장도 있으니 수고스러운대로 자체로 식사를 해자시세요.》

미군의 세균전에 의하여 주민들 거의 모두가 전염병을 앓고있었다.

우리가 아침을 지어먹고있는데 적기편대가 날아들어 전날에 복구해놓았다고 하는 산골짜기의 골개강다리를 파괴하였다.

당시에 놈들은 《교살작전》이니 뭐니 하면서 비행대를 총동원하여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도로와 크고작은 다리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수송로를 토막토막 끊어놓았다. 거기에다가 수십년래의 큰물까지 겹쳐들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불굴의 의지로 파괴된 다리와 도로를 지체없이 복구해놓군 하였다.

《네놈들이 백번 끊어봐라! 우리는 백한번 복구해놓을테다!》

이날 우리는 다리가 폭파된것을 보고 우회도로를

정찰하러 나갔다. 여울목을 정찰하고 돌아오는데 삼과 곡괭이를 든 사람들이 명랑하게 떠들면서 마을길에 들어서고있었다.

《군대동무. 다리가 복구되었어요. 수중교를 놓았으니 눈깔썩은 미국놈들이 다시는 다리를 어찌지 못할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나네는 아침에 동자질하러 일어나기도 힘들어한 그 집의 며느리였다. 전염병을 앓으며 누워있던 그 몸으로 다리복구에 나갔던것이다.

우리가 그런 몸으로 다리복구에 나갔던 그 수교에 인사를 하자 녀인은 대답하였다.

《밥은 한두끼 끓을수 있지만 전선길의 혈맥을 순간도 멈출수 없어요. 그 길이 넓지 않고 그 다리가 크지 않아도 전선의 운명이 걸려있는 생명선이 아니나요.》

이런 인민의 힘을 무엇으로 꺾을수 있단 말인가.

전화의 그날 강원도의 그 녀인이 한 말이 수십년이 지난 오늘도 나의 귀전에 쟁쟁이 울리고있다.

한대의 적기도 놓치지 말라

전쟁로병 유형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주체41(1952)년 10월 제5보병사단 독립고사포대대에 37mm고사포 2개 중대, 12.7mm고사기관총 한개 소대로 기동고사포군을 조직하여

배천—연안—청단—해주—옹진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령활하게 기동하면서 중요대상물과 농민들의 가을 걷이전투를 엄호하며 적비행기를 사냥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명령을 받은 우리는 지체없이 전투행동지대에 진출하였다.

그때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야간에 은밀히 진출하여 진지를 신속히 차지하고 포를 전개시킨 후 날이 밝기전에 식사를 끝내고 중대전원이 동원되어 적비행기주요래습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대공감시를 하군 하였다. 그러다가 적기가 접어들면 첫발에 명중시킬수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 바싹 끌어당겨 불의의 일제사격으로 집중포화를 들썩워 소멸하고는 또 다른 진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적비행기를 따라가면서 잡아치웠다.

또한 진지위치는 좋으나 대상물이 없는 구역에서는 위장물을 설치하여 적비행기를 유인한 다음 그 가까이에 배치하였던 고사포로 적기를 사격소멸하군 하였다.

적기와 의 싸움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는 치열한 공방전이였다.

청단의 한 낮은 고지(옆으로는 북쪽의 저수지에서 강화도방향으로 흐르는 강이 있고 강에는 연안에서 해주로 가는 다리가 있으므로 그 다리를 폭격하는 적비행기를 소멸하기에는 명당자리였다.)에 배치된 37mm고사포중대는 주체41(1952)년 11월 어느날 2시간에 걸쳐 6차이상

련속 파도식으로 침입하는 수십대의 적비행기들을 대상으로 결사적으로 싸워 여러대의 적비행기를 쏘멸구었다.

경험에 의하면 적기와 고사포와의 전투는 10~15분 정도 진행되는것이 일반적인데 2시간나마 지속되는 대공전투에서 련속사격을 보장한다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적비행기는 진지를 향하여 내리쫓히며 폭탄을 떨구고 기총사격을 하였고 고사포는 고사포대로 급강하하는 비행기를 맞받아 계속 사격을 하였다.

중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결사적으로 련속사격을 보장하였다.

중대장임무를 대리로 수행하던 황병성동무는 세번씩이나 흠에 파문혔으나 매번 기적적으로 헤치고 일어나 《한대의 적기도 놓치지 말라.》, 《희생된 전우들의 복수를 위하여 쏘!》라고 웨치면서 전투지휘를 보장하였다.

문화부중대장은 복부에 부상당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포진지들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계신다.》, 《미제를 소멸하고 아버지, 어머니들의 원한을 풀어주자!》라고 웨치면서 전투원들을 승리로 고무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한 조준수는 부상을 당하여 포관에서 굴러떨어져서 발판을 누르지 못하게 되자 《나에게는 손이 있다.》고 하면서 한손으로 발판을 눌러 사격을 중단없이 보장하고 최후를 마쳤다.

취사원까지 진지에 달려나와 부상당한 전투원들을

대신하여 포탄을 나르고 장탄하면서 희생적으로 연속사격을 보장하였다.

진지는 온통 적들의 폭격과 기관총사격에 벌둥지처럼 패이고 포가 전복되고 예비포신이 폭격에 의하여 고지 밑 논판에까지 날려갔다.

피가 튀는 결사전은 저녁해가 지고 어둠이 깃들어서야 끝났다.

이 전투에서 세운 위훈으로 하여 황병성동무가 공화국 영웅칭호를, 중대전원이 국기훈장 제1급과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을 비롯한 높은 급의 국가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문화부중대장을 비롯하여 3명의 귀중한 전우들을 잃었다. 우리는 전우들을 그들의 피가 스민 고지에 묻었다.

오늘도 청단사람들은 이 고지를 영웅고지라고 부르 고있으며 영웅전사들의 묘소를 성의껏 관리하고있다.

무 죄 다리

전쟁로병 리홍룡

적땅크는 땅을 물어뜯으며 악착스레 덤벼들고있었다. 그러나 나의 온 정신은 오직 주사기에만 가있었다. 벌써 나는 두 주사기째 내 피를 뽑아 통신병에게 수혈 해주고있었다.

우릉우릉 땅크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수혈속도는 당길수 없었다. 멈출수는 더욱 없었다.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수혈을 마치고 부상병을 무작정 경사지로 떠미는 순간이었다. 나는 선풍함을 느꼈다. 땅크의 포탄파편이 오른쪽다리를 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나는 의식을 잃었다.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나는 내가 죽은것 같기도 하고 산것 같기도 하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피가 자연지혈된 상태였다.

(전우들도 못보고 여기 1 2 1 1고지가 2 1 살 처녀 군관인 내 생의 종착점이 되겠지. 아, 살고싶구나)

한순간이라도 더 살수 있다면 나를 쏜 적땅크병놈을 기어이 찾아내여 단방에 요정내고싶었다.

생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질수록 나에게는 떠나온 평양하늘이 못견디게 그리워졌다.

구급가방에서 지혈제와 강심제를 있는껏 다 꺼내여 맞은 나는 대퇴우에 올라와붙은 하퇴를 잡아제껴 붕대를 7개나 감았다.

누운채로 다리를 잡아당겨 한치한치 기고 또 기어 날이 저물어서야 나는 통신병이 쓰러진 곳에 이르렀다. 통신병의 몸은 이미 싸늘하였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려내고싶었던 애어린 통신병겉에 나란히 누운 나는 그의 몸을 모포로 뽐뽐이 여며주었다. 그리고는 굳어진 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을 잡아 녹여주면 금시 살아날것만 같았다.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통신병의 얼굴을 이윽도록 들여다보느라니 락동강기슭에 묻고온 련락병 송영호의 마지막목소리가 귀가에 쟁쟁히 들려왔다.

《소대장동무, 언제면 어머니를 만날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정말 보고싶어요.》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얼마나 끝끝한 이 땅의 기둥감들이 원주의 총탄에 원통하게 쓰러졌던가.

나의 눈앞에는 락동강너머 이름없는 고지에 시신도 묻지 못한채 두고온 전우들의 얼굴이 새록새록 밟혀왔다.

...

《대대 앞으로!》

《중대 앞으로!》

고지의 11명은 겨끔내기로 웨쳤다. 총알도 떨어져 손톱이 빠지도록 산을 허물어 돌을 굴리던 전사들이 하나둘 줄어 고지에는 3명만 남게 되었다.

팔을 잃은 중기중대장, 앞을 못보는 분대장, 대퇴가 골절된 19살난 전사... 그 중환자들을 다 업고 갈수도 없고 어느 한 사람만 업고갈수도 없고. 나는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할바엔 그들과 운명을 같이하리라 마음먹은 나는 떼지어 쓸어드는 적들을 노려보며 권총을 꺼내들었다.

《몸이 성한 준의동무가 우리와 같이 죽는다는건 당에 유익하지 못하오. 어떻게 하든 저 동무들을 살려내야 하오.》

승벽내기로 이어지던 양보끝에 19살 꼬마를 후송시키기로 락착되었다. 전사의 가슴에 피에 젖은 공화국기가

안겨졌다.

《제주도에 이 기발을 날려달라구.》

나는 눈물을 머금고 고지를 내렸다.

배낭 2개에 구급가방, 보병총 2자루에 권총까지 차고 남보다 허우대가 큰 전사를 업고나니 조그마한 나는 산길은 집에 눌리워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떼었다. 그때마다 부상당한 전사의 다리가 땅우에서 너덜거렸다. 산길은 점점 더 가파로워졌다.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모아 말처럼 꺽충꺽충 모두뼉을 뛰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네발걸음으로 또 그다음은 온몸으로 나는 부상병과 함께 수십리 적진을 헤쳤다.

부상병을 업고 아군지역에 들어서자 나는 쓰러졌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한낱한시에 입대한 김경옥간호장이 나의 어깨를 흔들었다.

《경옥아, 내가 살아있니?》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있는가.

《난 가야 해. 그들을 업어와야 돼. 아직은 내가 살아있지 않니?》

열에 떠 군의소를 뛰쳐나가는 나를 경옥이 와락 붙잡았다.

《그들은 모두 용감하게 자폭했대.》

...

락동강너머 이름없는 고지에 서슴없이 청춘의 희망과 행복을 묻은 그들의 비장한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있었다. 살아있는 한 한놈의 원수라도 더 죽여야 한다고 죽음의

문어구에서 해매이는 나를 돌려세우고있었다.

물, 물이 먹고싶었다. 4일째 나는 물 한모금 입에 대어보지 못했다. 꿈속에선 그리도 많이 찾았던 샘줄기들이 눈만 뜨면 탄피밭으로 변하군 하였다.

원쭉는 가까이에, 전우들은 멀리에 있었다.

미군 패잔병 4놈과 단독으로 맞서 한놈은 날창으로, 두놈은 총탄으로 제끼고 남은 한놈에게 담가까지 메워지휘부까지 십리길을 끌고왔던 용감한 무훈담의 주인공인 내가 살아있는 한 의무를 다 하여야 하였다. 통신병의 최후를 전우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였다.

나는 격발기를 당겨놓은 권총을 권총갑에 넣으며 또다시 북을 향해 기여갔다. 조금뿐이던 밀쌀도 거덜이 난지 오래다. 아직도 더운 열기가 확확 뿜어져나오는 1211고지에는 뜯어먹을 풀 한포기도 없었다. 벌써 6일째였다.

전투명령을 받고 적진을 향해 나가던 정찰병들이 실신해 쓰러진 나를 둘러쌌다.

《전사했다던 3련대 준의요!》

나의 품속에서 조선로동당원증을 꺼내 펼쳐본 누군가가 웨쳤다.

부상병 184명을 혼자 맡아 완치시켜 그들 모두를 1211고지로 떠나보낸 나를 온 련대가 알고있었다.

정찰병들에게서 나를 인계받은 호송병들은 밤낮 쉬지 않고 병원으로 달렸다. 어설픈 담가를 땅에 내려놓을 때마다 배가되는 아픔을 참느라 모지름쓰는 나의 고통은 곧 그들의 고통이었던것이다.

...얼마후 나는 어느 한 전상자병원에서 쌍지팽이를 짚고 다니며 한개 병동의 환자들을 맡아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후날 나를 만난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는 의족을 한 나의 다리를 묵묵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야, 이 무쇠다리도 이렇게 되느냐? 미국놈새끼들!》

나는 그 다리로 전승을 맞이했다. 전승의 열병식장으로 떠나가는 전우들을 바래우며 나는 승리자의 희열을 맛보았다.

전우에 대한 책임감과 희생성은 나의 무쇠다리를 떠받든 두 기둥이었다. 바로 그것이 연약한 다리에 무쇠같은 힘을 주었다.

통쾌한 역습

전쟁로병 심규원

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0(1951)년 7월부터 제2군단 제13보병사단 23련대 3대대 중기중대 2소대장으로 1211고지방어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 소대는 8중대에 배속되어 1211고지 봉우리정점에 화력진지를 차지하고 무명고지와 룡선을 따라 공격하는 적을 소멸하게 되어있었다. 부대에서는 한치의 땅도 적들에게 내여주지 말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관철하고야말 불타는

각오를 안고 진지를 꾸리었으며 1211고지 앞계선에 차단물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였다.

우리가 진지를 차지한 때로부터 얼마간 시일이 흘렀지만 적들은 공격하여오지 않고 각종 포사격과 폭격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대었다.

그러던 어느날 1211고지 동쪽 비탈면에 있는 샘물터로 물을 뜨러갔던 련락병이 숨이 턱에 닿아 달려오더니 9중대장 은폐부앞에 적들이 기여들어 손들고 나오라고 소리친다고 보고하는것이였다. 전혀 뜻밖의 정황이였다.

나는 련락병과 함께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련락병의 말대로 9중대장 은폐부앞에서는 수십명의 적들이 아군진지를 향해 투항하라고 고아대고있는것이였다.

나는 조성된 정황을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중대장은 대대와 통신이 단절되었다고 하면서 나에게 중기관총 2문을 9중대가 배치된 룡선으로 내리사격을 할수 있게 배치하여 몰사격을 들이대며 보병 한개 소대로 적을 기습할데 대한 단호한 명령을 내리는것이였다.

중대장의 명령을 받고 나는 중기관총 2문을 좌우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한 다음 불의의 교차사격을 가하였다. 여기에 합세하여 보병소대가 돌격을 개시하였다. 그러자 쏙전까지만 하여도 기세등등하여 왜가리청을 뽑던 적들은 기겁하여 줄행랑을 놓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얼마나 혼쫓이 났던지 우리가 매몰한 지뢰밭으로 막 몰려갔다. 뒤이어 산골을 울리는 폭음이 련속 터져올랐다.

이때 우리 진지뒤계선에 위치한 박격포중대에서

놈들의 퇴로를 차단하며 맹렬한 지원포사격을 들이대었다. 결국 놈들의 불의적인 기습은 우리의 역습으로 하여 실패하고말았다. 역경이 순경으로 돌변한 전투였다.

나는 이날의 전투를 통하여 조성된 불의의 정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주동적으로 내리는 지휘관의 결심과 전투조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새기게 되었다.

이날 전투에서 우리는 각종 보총 71정, 경기관총 3정, 많은 량의 탄약과 수류탄을 로획하였으며 적병 5놈을 포로하였다.

1211고지방어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진행된 이날의 전투를 통하여 우리는 미제침략자들과 괴뢰군놈들이 아무리 덤벼든대도 얼마든지 족칠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과 배심을 굳게 가다듬게 되었다.

정찰병들의 진지

전쟁로병 김득

일반적으로 보병들에게는 자기의 진지가 있다. 하지만 적후방을 종횡무진하며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정찰병들에게는 그런 진지가 없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보병들의 제1선참호가 정찰병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후방이 되기도 한다.

주체39(1950)년 8월 군복을 입고 어느 한 련대에

소속되어 신병훈련을 받은 나는 련대가 제3군단 15보병사단에 편입될 때 사단직속 정찰중대의 정찰병이 되었다.

주체40(1951)년 가을 우리 사단전연에 위치한 적들의 력량이 일부 배비변경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움직임을 알아낼데 대한 임무가 우리 정찰중대에 떨어졌다.

적장교놈을 잡아오는것이 제일 빠른 방도라고 생각한 중대장은 10명 남짓한 대원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속에는 19살 난 분대장인 나도 있었다.

우리는 소양강을 따라 하류쪽으로 내려가다가 린제부근에서 《허》를 잡을만 한 맞춤형 장소를 찾아냈다. 길 한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반대쪽으로는 우중충한 바위벼랑이 서있었다. 길 량쪽에 매복한다면 적이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쉽게 잡을수 있을것 같았다.

우리는 곧 벼랑끝을 허물어 길을 막아놓고 두조로 나뉘어 량쪽으로 매복하였다.

얼마후 밤공기를 타고 자동차발동소리같은것이 들려오더니 인차 한대의 찢차가 우리가 쌓아놓은 돌무지앞에서 멈춰섰다.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일제히 찢차를 에워쌌다.

《손들엇! 반항하면 쏠테다.》

통역원격인 우리 동무가 맵짜게 영어로 말하자 놈들은 제각 두손을 들고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반항같은것은 애초에 생각도 못했다. 찢차에는 운전사와 한놈의 미군장교놈이 타고있었는데 키가 나보다 두뼘정도나 큰 놈들이었다.

무장해제당한 장교놈은 애절한 물골로 옷주머니에서 보풀이 인 종이장을 꺼내들며 뭐라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 종이에 는 살려만 주면 하라는대로 다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우리 말로 적혀있었다. 아마도 자기가 인민군대에 잡히는 경우를 생각하여 늘 품고다니던것 같았다. 정말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나 다할 놈들이라는 생각에 울컥 치미는 격분과 함께 이런 비굴한자들이 미군장교라고 우쭐렁거렸다는 생각에 조소를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놈들의 차를 척 타고 전선린접까지 왔으며 거기에서 미군포로를 끌고 전선을 넘었다.

그후에도 나는 수십번이나 《허》를 잡기 위하여 적후에 들어가군 하였는데 놈들이 노는 꼴은 다 이런 식이었다. 총구를 들이대면 너무 무서워 온몸이 굳어졌는지 손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것이 미국놈들이였다...

나는 지금도 생각하군 한다. 미국놈들은 든든하게 꾸러놓은 자기들의 진지안에서도 왜 항상 공포에 떨어야 했고 우리는 적들의 종심깊은 곳에서도 활개를 칠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미국놈들이 돈에 팔려온 고용병들이였기때문일것이다.

우리가 딛고선 땅은 아군지역이든 적후이든 당당한 우리의 땅이였지만 미국놈들이 딛고선 땅은 아무리 자기들이 차지한 진지라도 남의 땅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정찰병들은 비록 진지는 없어도 어디가나 자기들의 진지에 있는듯 마음이 든든하였다.

적기를 나에게로

전쟁로병 리영제

아군의 반공격에 합세하여 단천군(당시)에서의 시가전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내무성 경비국 함경남도경비대대 부소대장으로 있던 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작전적구상을 받들고 새로 조직되는 비행기사냥군조장으로 임명되었다.

내가 속한 비행기사냥군조는 북청군 초리에 위치한 중요다리를 적비행기들의 침입으로부터 철저히 보위할 데 대한 임무를 받았다. 적비행기와의 첫 조우전을 앞두고 나는 조원들의 무기소유상태를 다시 한번 깐깐히 점검하였다. 비행기사냥군조원수는 13명이었는데 무기는 보병총 10정, 경기관총 2정, 중기관총 1정이었다.

대원들을 이끌고 다리목에 매복한 나는 하늘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적비행기가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새벽 5시경이었다. 마을에서 나온 한 농민이 소달구지를 몰고 다리를 지나가고있었다.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적비행기 한대가 소달구지를 사격목표로 정하고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적비행기의 기총사격을 받고 눈깜박할 사이에 그 자리에서 숨이 진 농민과 길옆에 맥없이 폭 꼬꾸라진

부림소를 보니 분통이 치밀어 견딜수가 없었다. 전선에서 혼쫓이 난 미제공중비적들이 그 양값음으로 길가는 농민을 야수적으로 살해하였던것이다. 총을 으스러지게 틀어쥔 나의 두주먹은 분노로 떨었다.

나는 비행기사냥군조 조장이면서 중기관총사수였다. 저공비행을 하며 제마음대로 날치는 적비행기에 대고 사격을 들이대였지만 좀처럼 명중할수가 없었다.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은 놈들이어서 사격권안에 들어오지 않는것이 제일 난문제였다. 다른 조원들도 유유히 꼬리를 사리는 적기를 명중사격할 뻔족한 방도가 없어 아까운 총알만 허비하고있었다.

(전선이나 고지에서는 적들과의 싸움구역이 명백하며 정황에 따라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수 있다. 하지만 적기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다 막아야 하며 공격시간이 따로 없다. 그러니 잘 은폐된 진지에 숨어서 적기가 오기를 잠자코 기다리기만해서는 언젠가도 적기를 요정낼수 없다. 적기를 사수에게로 유인하자. 적기를 나에게로!)

나는 이렇게 굳게 속다짐했다.

우리 조원들에게 있어서 첫 전투세례는 결코 헛된것이 아니였다. 적기와외 첫 조우전은 우리에게 공포심이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는 묘리를 찾게 하였고 횡포한 적기와 단신으로 맞서싸울수 있는 용감성과 담력을 키워주었다.

우리는 적기를 사수에게로 유인하기 위한 허위대상

물들을 만들었다. 넘어진 전주대나 나무토막에 검은 색칠을 하여 고사포로 보이게 위장한 다음 그것을 진지 바로 옆에 설치하여 적기를 유인하기로 하였다.

-눈 먼 적기들은 반드시 이것을 노리고 덤벼들 것이며 절호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기를 정면으로 맞받아 올리쏘자.-

그 이튿날 자신만만한 배심과 승산을 가지고 첫 전투가 벌어졌던 다리부근에 화력진지를 다시 정한 우리는 가짜고사포와 가짜자동차로 적기들을 유인하기 시작하였다.

사위가 조용해질무렵 어디선가 미묘한 비행기발동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이윽고 하늘가에 시커먼 점들이 나타났다. 적습격기편대였다.

습격기 3대중에서 주도기를 먼저 쏘떨구기로 했다. 적비행사놈들은 겁이 많고 죽기를 꺼려하는 고용병들이라 주도기만 잡으면 나머지놈들은 다 얼혼이 나갈것이 분명했다.

허위대상물로 바투 내려쫓히는 주도기의 프로펠라를 정면에서 맞받아쏘니 적기가 중심을 잃고 하늘공중에서 오락가락 헤매기 시작했다. 비행기사냥군조 13명전원이 집중사격을 들이대자 동체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나왔고 얼마 안있어 주변의 논판에 구겨박혔다. 주도기가 거꾸러지자 나머지 적기들은 혼란에 빠져 달아날 틈만 찾았다. 우리는 공동보조를 맞추어 사격을 계속 맹렬히 들이댔으므로써 이날 전투에서 2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리었다.

우리는 격추된 적비행기 잔해에서 4정의 기관총을 분해하여 떼냈다. 우리 비행기사냥군조에는 전쟁 전에 룡성기계제작소(당시)에서 선반을 돌리던 동무가 있었다. 그가 기관총을 가지고 그곳 로동계급을 찾아가 고사기관총으로 개조해가지고 돌아왔다. 우리는 나무바퀴에 고사기관총을 올려놓고 회전하면서 사격하기로 하였다.

그후 우리는 리원지역을 적기의 폭격으로부터 보위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기차굴이 잘 바라보이는 등성에 이동사격할수 있는 화력진지를 만들었다.

어느날 적기 6대가 차굴속으로 들어가는 군수렬차의 꼬리를 물고 불쑥 나타났다. 첫번째 적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며 내리쫓힐 때는 렬차가 굴속으로 거의 들어갔을 무렵이었다. 제놈들의 기도가 파탄되자 적기들은 차굴어구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기관총사격을 퍼부었다. 차굴에서는 렬차의 흰 연기가 뿜어나오고 기적소리가 계속 울리고있었다. 다시 기여드는 적기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전투원들의 머리속에서는 한시바삐 적기를 잡아치워야 렬차가 전선으로 무사히 달릴수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차굴어구를 향하여 내리쫓히는 적기를 썩싸게 조준경안에 잡아넣고 중기관총압철을 눌렀다. 적기는 세찬 불길에 휩싸여 바다속에 처박혔다. 그러자 또 다른 적기편대가 굴주위를 맴돌면서 사격좌지를 찾아내려고 날뛰었다. 적기들은 이번에는 전술을 바꾸어 여러대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다. 우리는 슬쩍 다른 진지로 사격좌지를

옮겨놓고 사격을 계속했다. 적기가 또 명중되었다.

이렇듯 대담한 전투행동으로 열흘동안에 우리 비행기사냥군조는 적기 3대를 쏘멸구는 위훈을 세웠다...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의 나날에 나는 6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군공을 세웠으며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견지명에 의하여 발기되고 전쟁전기간 장성강화된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이야말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군사예술의 빛나는 구현이었으며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사 관철하고야마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무한한 헌신성의 산물이였다.

가리산에 울린 포성

전쟁로병 김동산

조선인민군 제1보병사단 2련대 소대장이었던 나는 포병부련대장으로부터 120mm박격포소대를 이끌고 가리산계선으로 진출할데 대한 명령을 받았다.

아군보병들이 방어하고있는 가리산협곡에서 적들은 한차례의 공격을 시도하고있었다.

적패잔병무리들이 쉬파리떼처럼 이곳에 몰려들었다. 우리 소대의 임무는 감쪽같이 가리산계선에 진출하여 강력한 포화력으로 적들의 공격기도를 좌절시키

는것이였다.

나는 대원들에게 말은 전투임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산지조건에 맞게 포병활동을 기동성있게 진행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여러 전투들에서 거둔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대의 전투승리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빛나게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런대에서는 포병들이 먼 야간행군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휴식을 명령하였다. 충분한 휴식을 한 우리는 드디어 행군을 시작하였다...

전방에서 척후가 달려왔다. 그는 나에게 약 500m앞에 적보병들이 집결해있다고 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대략 두개 중대가량의 적병들이 골짜기의 익측에서 숙영하고 있었다.

나는 대렬을 멈추고 지도를 펼치였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멀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있었다.

(계속 골짜기를 따라 행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는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박격포신이며 포관, 포가들이 달빛에 번뜩이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빛나는것은 대원들의 눈빛이였다. 피눈물나는 지난날을 추억할 때면 물기를 머금다가도 가증스러운 원썩을 노릴 때에는 불덩이를 안군 하는 그 눈빛들이 어서 명령을 내려달라고 웨치는것만 같았다.

대오는 산길을 뚫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행군속도는 조금도 늦춤이 없었다. 발밑에서 해묵은 락엽들이 짓이겨졌고 포신과 포가에 걸려 나무가지들이 연방 휘청거렸다.

우리는 이렇게 달리고 또 달리었다.

《그 포관을 내게 올려놓게.》

발을 헛디딘 한 전사를 부축하며 나이지숙한 포병이 말을 건네었다.

《행군이란 전투하는것보다도 어려워. 그래서 전투의 승리는 전사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격언도 있지 않나. 기운을 내라구. 이제 우리가 가리산기슭에 불쑥 나타나 놈들을 답새겨보지. 어떻게 될것 같나?》

마침내 대오앞 수십보앞에 산마루가 나졌다. 가리산이 틀림없었다. 주위는 고요했다.

(이제 이 고요를 깨치며 폭음이 울릴것이다. 그것은 아군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적들에게는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기는 장엄한 서곡으로 될것이다.)

나는 곁에 있는 부소대장에게 명령하였다.

《행군속도를 높일것! 뒤로 전달!》

대오에 나래가 돋친듯 싶었다. 바로 이때 위협적인 웨침소리가 그들을 못박아세웠다.

《뽀짝말고 손들엇!》

소대는 우뚝 멈춰섰다. 각이한 생각들이 그들의 뇌리를 번개치듯 스쳐지나갔다.

(적인가? 아군인가?)

극히 짧은 한순간이 지나자 소대는 일시에 몸을 날려

나무며 바위돌들에 은폐하고 전투태세를 취하였다.

《쏘지 마오!》

나는 대원들을 향하여 짙막하게 명령하고 상대편을 향하여 그쪽은 누구냐고 물었다. 상대쪽에서 좀 누그러진 목소리가 울려왔다.

《혹시 양구쪽에서 온다는 포병친구들이 아니요?》

《옳소.》

나는 이렇게 대답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개인천막을 쓴 전사가 마주왔다.

《소대장동지를 안내할 임무를 받고 나왔습니다.》

앞에 선 전사가 거수경례를 붙이며 하는 말이였다...

나는 정렬해선 대원들에게 명령하였다.

《1분대와 2분대는 사격진지와 은폐호들을 굴설할 것! 3분대는 박격포들을 조립할 것!》

삼질소리, 쇠붙이 부딪치는 소리...

나는 마중나왔던 4명의 전사들과 함께 고지로 치달아올랐다.

포병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접한 고지의 지휘관들과 보병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나는 포대경으로 적정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적보병들이 구데기끓듯 하는 계곡이며 군데군데 되는대로 처박혀있는 화력기재들, 운수기재들 등이 나의 눈에 사진처럼 찍혔다.

아침 6시.

나의 구령소리가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퍼졌다.

《소대 주의! 적보병 류탄… 쏘!》

박격포들이 적진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적진은 순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가리산너머에서 난데없이 포탄이 날아든다는 연락을 받고 급기야 적기들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감쪽같이 은폐호속에 사라지곤 하는 박격포들과 포병들을 찾으려 만무하였다.

포사격이 끝나자 고지에서 만세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왔다. 보병들의 돌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날 전투에서 우리 포병들은 수백명의 적병들을 살상하였으며 여러대의 자동차들과 많은 전투기술기재들을 파괴함으로써 가리산계선에서의 적들의 공격을 좌절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방송포탄》

전쟁로병 송암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는 공격전에 나서 적진을 향해 총탄을 많이 날리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전쟁시기 방송원으로서 적진을 향해 《방송포탄》을 날린것을 나는 지금도 더없는 긍지로 여기고있다.

나는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시기 전선동부의 방송원으로서 주체41(1952)년 9월에 있는 854.1고지습격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854.1고지는 동북쪽에 351고지가 있고 서남쪽으로는 1211고지와 접하여있으며 고성으로 뻗은 도로를 끼고있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적들은 아군진지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기도하면서 1년나만이 고지에 철근과 세멘트를 날라다 진지를 구축하고는 《철벽의 요새》라고 떠벌이고있었다.

아군부대들은 9월 21일 밤 먼저 854.1고지 우측에 있는 811.7고지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여 단숨에 타고앉았다. 이에 당황망조한 놈들의 시선은 이 방향에 쏠리기 시작했다. 적들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에 대처하여 부대에서는 22일 854.1고지에 대한 습격전투를 준비하였다.

스물한살 꽃나이녀병사로 중요한 습격전투에 참가하게 된 나의 가슴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는 확신이 차넘쳤다.

9월 22일 습격전에 나가는 군인들은 854.1고지를 정면과 두 익측으로부터 공격하기 위하여 돌격진지를 차지하였다.

당시 고지와 린접한 산마루에는 아군확성기가 설치되어있었다. 나는 고지에서부터 공격출발선가까이에 마이크선을 늘어놓고 전투원들과 함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였다.

우리 방송원들은 늘 새벽에 적진을 향해 방송을 하였다. 그런데로부터 일부 지휘관들은 방송원들의 건강을 념려하여 초저녁에는 눈을 붙일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우리 방송원들은 자다가 일어나 방송하면 목이 갈린다고 하면서 그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나 역시 습격전투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에는 저녁밥을 건성 들고는 화선방송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

습격전이 바야흐로 개시될 그 시각에도 나는 마이크를 두손에 감아쥐고 원수들에게 멸적의 《방송포탄》을 안기리라 다짐하였다.

드디어 22일 1시. 공격명령이 내렸다.

《만세!》의 힘찬 함성을 울리며 우리 전투원들은 고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나는 끝안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방송을 하였다.

《국군장병들, 고지는 포위되었다. 너희들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투항하라. 그러면 생명안전은 담보될것이다.

미국놈들의 총알받이가 되어 더러운 개죽음을 당하지 말라!》

고지에서는 적아간의 교차사격이 치렬하게 개시되었다. 그러나 그 총성을 누르며 우리의 방송소리는 산골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었다.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병사들은 짧은 시간에 적진을 타고갔았으며 고지에는 람홍색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게 되었다.

이날의 전투에서 신기철분대장과 박원진전사는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돌격로를 열었으며 우리 전투원들은 적병 2 400여명을 살상포로하고 땅크 5대를

비롯한 수많은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들을 로획 및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날 병사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나는 마이크를 틀어잡은 전사의 영예와 보람을 가슴뿌듯이 느끼었다.

그후에도 나는 고지에 설치된 방송초소에서 적진을 향해 《방송포탄》을 계속 날리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존엄높은 생활을 알려주고 미제와 괴뢰군상층부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까밝히는 방송을 즐기치게 진행하였다.

우리의 방송을 듣고 적진에서는 매일이다싶이 의거자들이 넘어왔다.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면서 나는 방송원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적측에서 넘어온 의거자들은 우리의 방송을 들으면 절로 우리측으로 넘어오고싶어진다고 하면서 장교들은 사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겠으니 인민군대방송을 까부시라고 매일같이 다블러댄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우리가 틀어잡은 마이크는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무기이며 놈들의 거짓선전에 넘어간 괴뢰군사병들을 정신차리게 하는 나팔과 같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우리의 정의롭고 격동적인 화선방송은 그대로 적들에게 가해지는 멸적의 포화였다. 우리의 방송으로 하여 적진내부는 날이 갈수록 와해되었다.

미제가 우리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에도 괴뢰군 1개

중대가 저주로운 고용병생활과 결별하고 우리 공화국으로 넘어왔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여러 직무에서 일하였지만 오늘도 마음속에는 나의 직무는 영원히 방송원이라는 공지가 자리잡고있다.

나의 화선악기

전쟁로병 권영목

직동령에서의 중대오락회는 매일 밤 노래로 막을 열고 노래로 막을 내리곤 하였다.

낮에는 원쑤를 치고 밤에는 승전가를 부르는 전우들의 기세는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었다. 그럴수록 악기 생각이 간절해졌다. 우리는 노래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러나 중대에는 하모니카 한개조차 없었다.

악기를 마련할 방도란 오직 자체로 만드는것뿐이었다.

나는 무작정 중대지휘부를 찾아가 결심을 터놓았다.

그때 나에게서는 악기를 만들어본 경험도, 특별히 남다른 손재간도 없었다. 있다면 중대에 나무베는 큰 톱과 큰 도끼가 있을뿐이었다.

하지만 《아무튼 만들어보자.》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소년시절 부산에 있을 때 형님이 구해온 만돌린을 다루어본 약간의 경험과 고학시절에 여러가지 현악기들을 구경해본적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현악기들의 겉모양은 대충 알고있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밑천이었다.

중대전우들의 전적인 지지속에 나의 모든 정신은 악기제작에로 집중되었다. 고지우의 그 무엇도 나에게 는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내눈에 45mm반땅크포탄탄피가 걸려 들었다. 그것을 들고 여러모로 연구해보니 해금통을 만들수 있음직하였다. 련대병기수리소에 가서 그 탄피를 적당한 치수로 잘라온 나는 부러진 보병총소제대를 얻어왔다.

그 소제대를 불에 달구어 큼직한 차돌우에 놓고 돌로 때려서 길이가 10cm가량 되는 손칼 하나를 만든 나는 그것을 숫돌에 갈아 날을 세웠다. 그리고는 자그마한 가래나무가지를 한대 잘라서 해금손잡이를 만들어 내고 줄조이개는 물푸레나무를 깎아 맞추었다. 구멍은 쇠꼬치를 달구어 뚫렸다. 활대도 역시 물푸레나무로 만들고 활줄은 마사원에게 부탁하여 말총을 구해 대신 하기로 했다. 말총에 바르는 송진도 소나무에서 긁어다 불에 끓여 찌끼를 거르고 찬물에 쏟아부어 덩어리를 만드니 아주 제법이였다.

문제는 줄이였다. 줄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거듭 고심한 끝에 나는 낡은 전화선 등을 리용하여 바이올린과 같이 4줄을 메웠다.

그다음 활줄에 송진을 발라서 한번 그어봤더니 소리가 났다.

《성공이다. 성공!》

그러나 소리는 극히 작았다. 그것은 울림통이 작고 울림판면적이 작기때문에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나는 그 해금을 바이올린처럼 어깨에 대고 연주해보았다. 《아리랑》, 《양산도》, 《노들강변》 등 아무것이나 쉬운 곡조는 다 할수 있었다.

저녁 오락회 때 나의 연주가 전우들의 대절찬을 받았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었다. 도끼와 자작손칼 하나를 가지고 만든 해금, 그것은 투박하고 불품없는것이였지만 당시 우리에게는 대단한 문화기재였다.

《재더미속에서 악기를 만들어내다니. 동문 정말 신기하구만!》

내가 만든 첫 해금을 본 정치부련대장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나의 해금은 사단장의 집무탁에까지 올랐다. 항일혁명투사 김일동지는 그 해금으로 민요 한곡을 들어보고는 대뜸 환성을 올렸다.

며칠후 나에게 3명의 목수가 왔다. 화선악기를 대대적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가 취해졌던것이다.

야장간이 전개되고 필요한 공구들이 마련되였다. 폭탄에 맞아 꺾어진 나무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말리웠다.

우리의 목표는 3종의 현악기인 만돌린, 바이올린, 기타를 만드는것이였다. 그러나 나의 머리속에는 악기

들의 걸모습만 있었지 구체적인 구조와 치수는 없었다.

게다가 나는 또 한가지 애로인 접착제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병사토의를 붙여보니 명태깍질을 물에 끓이면 아교(접착제)가 된다는것이였다. 각방면으로 물색하여 구해온 명태깍질은 과연 효과적인 아교였다. 그러나 것처럼 많이 요구되는 아교를 명태깍질로 다 충당할수는 없었다.

손에 잡히는 무엇이든 다 끓여보던 어느날 우리는 길옆에 묻혀있는 소가죽을 발견하였다. 그것을 물에 잘 씻어 가마에 넣고 푹 졸이니 정말 놀라우리만치 멋진 아교가 생겨났다.

이렇게 피타는 노력의 45일간이 흘러갔다. 자력갱생은 우리에게 바이올린 3개, 만돌린 3개, 기타 3개를 안겨주었다.

사기충천한 우리의 보고를 받은 정치부련대장은 즉시 화선악대를 조직하였다. 각 대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전사들과 초급지휘성원들을 포함하여 엄선된 15명이 련대에 도착하였다.

그날부터 나는 직동령의 전호숙에서 화선악대성원들에게 연주법을 배워주었다. 약 20일정도 훈련했더니 쿵작 쿵작 흥내를 낼수 있게 되였다. 현악기들에 북, 대고, 소고, 피리도 합세하였다. 거기에 우리는 합창, 중창, 독창, 시랑송들으로써 몇가지 종목을 더 첨부하였다.

드디어 근위강건 제2보병사단 제17련대에서 발단한 우리 화선악대는 각 대대로 순회공연의 길을 떠났다.

어느날에 어느 대대로 내려간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대대에서는 즉시로 수림속에 가설무대를 차려놓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다.

공연이 시작되면 호기심어린 수백쌍의 눈동자가 우리를 주시하였다. 매 종목들이 끝날 때마다 전투원들은 손바닥이 깨져라하고 박수를 쳤다. 공연은 약 30분정도 이면 끝났지만 화선악대가 남긴 여운은 매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그후 화선악대는 련대를 넘어 사단, 군단으로 파급되었다.

주체41(1952)년 후반기 우리 부대는 직동령을 떠나 원산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부대의 척후뒤에 자리를 잡은 우리 화선악대는 북통을 울리고 피리를 불면서 행군대 오를 고무하였다.

대오가 높은 령이나 고개를 넘을 때에는 화선악대가 먼저 마루에 올라가서 더 요란하게 음악을 연주했다. 그러면 아무리 험한 령을 넘어도 피곤하지 않고 다리아픈줄도 모르겠다고 전사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락이고 보람이며 영예였다.

부대가 원산지구에 와서 해안방어임무를 수행하는 파정에 우리 화선악대는 자기 모습을 또 한번 갱신하였다. 군단정치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힘이였지만 평양에서 내려온 예술소련대동무들의 공연과 진심어린 방조는 우리의 걸음을 더 크게 떠밀어준 추동력이였다.

그때 희한한 바이올린독주로 전투원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던 연주가는 유명한 백고산이었고 《압록강 2천리》를 우리에게 배워준 독창가수는 오매훈이었다.

직동령에서 만났던 조선인민군협주단 배우들을 원산에서 다시 만나보게 된 나의 반가움은 이루 말할수 없이 컸다.

전투원들을 천백배의 복수전으로 부른 노래 《결전의 길로》이며 직동령에 새로운 정서와 흥취를 부여준 《자동차운전사의 노래》, 《해안포병의 노래》, 《정찰병의 노래》와 같은 명곡들은 다 그때 공연을 통하여 처음으로 들은 명곡들이었다.

그날 적의 포탄이 때없이 날아와 터지는 전호가에서 백고산은 내가 만든 바이올린을 연주해보았다. 그리고는 소리가 아주 잘 난다고 고무해주며 바이올린을 제작할 때 류의할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주체42(1953)년에 우리 화선악대는 인민군군인들의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평양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참으로 손을 꼽아가며 기다려온 꿈같은 순간이었다.

그후 우리는 전국전투영웅대회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승을 축하하는 공연에 또다시 참가하였다.

공연이 끝나는 순간 우리 공연참가자들은 일제히 무대로 달려나갔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우리들의 얼굴우에, 대회참가자들의 옷자락에 감사의 눈물은 줄줄이 흘러내렸다.

로병들의 추억

편집: 김준혁, 김광수

편성: 장향옥

낸 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 104(2015)년 4월

7-5201230

조선·평양
주체104(2015)년

ISSN 176-1716-0-1273-9



9 789946 012735 >